

2017 연차보고서

SNUAC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표지설명

몽골 초원의 해질녘 모습. 몽골 전통 가옥 게르(Ger) 너머로 보이는 석양은 언제나 황홀하다. 이동식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뼈대에 가죽의 털로 짠 두꺼운 천이나 가죽을 씌운 게르에서 생활한다. 구름이 이에 곁들여져 말이 필요 없는 멋진 그림이 되어주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17년 몽골 문화주간을 기념하여 여행기 포토에세이 공모전을 주최하였고, 이를 통해 몽골의 진풍경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 최훈

4~5p

몽골 여행 첫 날의 풍경. 고비사막으로 가는 길 (최훈)

11p

참치원정대- 나른한 오후, 게르 안에 누워 하늘을 보다. (김경태)

30~31p

몽골의 끝없는 지평선. 이정표 하나 없는 단조로운 벌판에서 생명을 느끼다. (김은지)

35p

남고비 사막의 밤. 게르 한 칸에서 느끼는 달과 구름의 경이로움. (장유정)

41p

몽골의 끝없는 지평선과 장대한 하늘, 그리고 게르 (최훈)

42p

낙타 투어 가는 일행들 (최훈)

54~55p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길의 흐린 풍경 (고경욱)

54p 下

지는 석양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몽골의 은하수. 육안으로 감상하는 하늘의 감동은 더욱 크다. (최훈)

55p 下

몽골 불간 지역의 테싱 섬 (Erdenetsetseg)



비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2017 연차보고서 목차

- 7 인사말
- 8 아시아연구소의 새출발
- 10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4개 지역센터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 5개 주제 프로그램
- 32 올해의 포커스
아시아도시센터 출범 / 아시아연구소 정기학술지 <아시아리뷰> 등재학술지 선정 / 2017 몽골 문화주간 / 북토크 시리즈
- 34 학술활동일람
- 43 출판
아시아리뷰 / 201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2017년도 아시아연구소 출판물
- 46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 47 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 48 교육
KF Global e-School Program /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
- 50 학문후속세대
연구연수생 / 아시아연구소가 발굴한 박사연구자들 / 아시아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
- 51 미디어
아시아연구소 영문 웹사이트 리뉴얼 /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의 아심작, <다양성+Asia> / THE NEWSLETTER '동북아 소식란'에서 만나는 아시아연구소
- 52 후원 / 재정
- 53 연혁
- 56 사람들

‘열린 아시아연구소’,
집중과 축적을 통해 구현하고자 합니다.

인사말

올해도 어김없이 아시아연구소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아시아 시대’를 열고, ‘아시아 연구’를 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을 만들어 보자는 일념 아래 설립된 아시아연구소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롭고 낯선 말이 아닌 아시아 시대에 선도적 지식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작년 한 해에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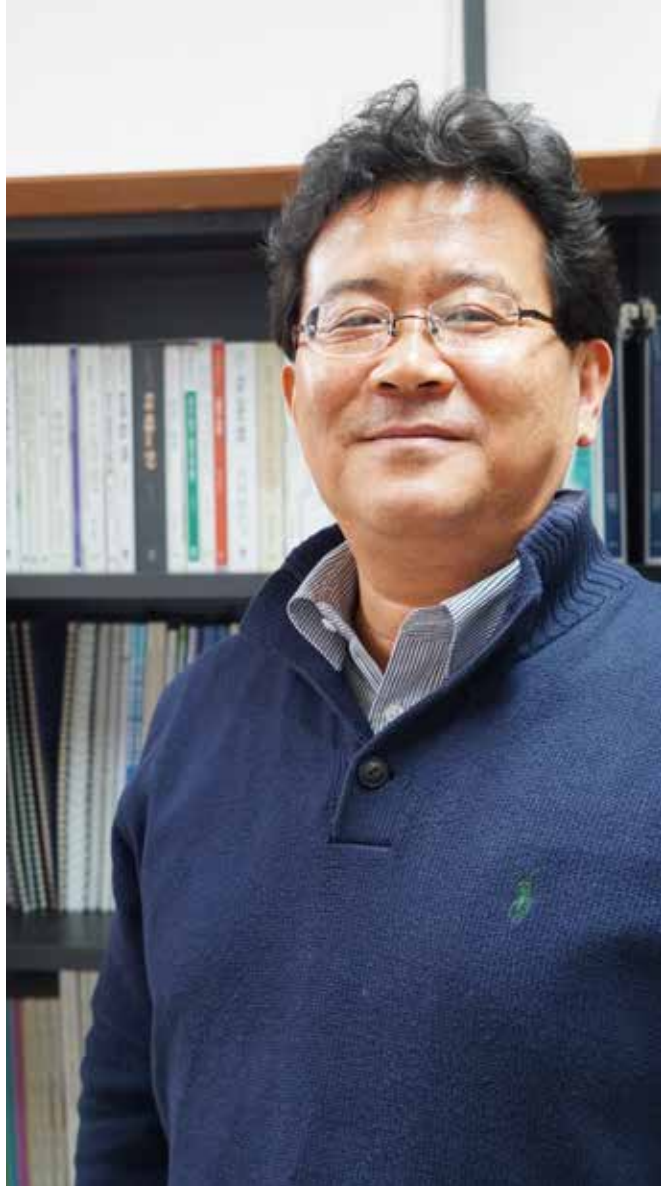
지난 9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연구 기관이 겪는 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설립 단계, 확장 단계를 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 단계를 거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함으로써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 연구 기반 구축과 우수한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설립 및 확장 단계를 지나 안정 단계에 안착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의 ‘축적’을 전략적이고 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심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연구’라는 영역에서 양질의 공유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진일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약적 축적을 통해 ‘아시아’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금 더 ‘열린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시아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무르며 연구해 보고 싶은 연구의 장(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연구소가 나아갈 길 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박수진**



아시아연구소의 새출발

열린 아시아연구소를 지향하며

아시아를 검색하다,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출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는 단연 아시아 연구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정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원하고 있다. 또한 여느 연구기관이든 각종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학술대회발표집, 답사자료집, 현장조사 자료 등-들을 생산해 내는 기능만큼이나 아카이빙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연구기관의 필수 기능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하여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지역정보센터(Regional Information Dissemination Center)' 구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2017년 10월,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아시아연구소 내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아카이빙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아시아지역정보 수집 및 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첫 발을 내딛었다.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아시아연구소가 생산해 낸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 및 지역자료-GIS 기반공간정보, 역사기록물 관련 문헌, 지역 관련 문헌, 주제 관련 문헌 등-를 수집하고 이를 아시아연구소의 센터 및 프로그램들이 협력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연구소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내 아시아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치함으로써 '열린 아시아연구소'에 일조하고자 한다

출범 9년째를 맞은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라는 인식론적 틀 아래 지역센터와 주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17년은 대내외적으로 아시아연구소의 질적 변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비를 시작한 해였다.

아시아를 읽다, '아시아지역리뷰웹진, <다양성+Asia>'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이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된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9년간 연구 주체로서 쌓아온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을 출범시켜 아시아의 교류, 협력, 통합을 지향하고 그 목적에 기여하는 웹진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본 웹진 명칭인 <다양성+Asia>에서도 보여지듯, 아시아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양성'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재적 이슈(current issue)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문화적, 정치·경제적 맥락을 '깊게' 때로는 '새롭게'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생산은 아시아 각 지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본 웹진은 필요시 아시아 연구 분야에서 현재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아시아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아시아를 함께 논하다,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

현재 아시아연구소의 공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내에는 아시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단위와 관련 구성원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는 ‘허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서울대 내에 있는 아시아 관련 연구소 간의 소통 및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시아로 통한다, ‘Friends of Asia Center’

아시아연구소는 ‘Friends of Asia, Friends of Scholars’라는 프레임 하에 학내의 아시아 지역 출신 학생들과 지난 2014년부터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해 온 연구연수생 및 교내의 연구자들과의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 교내의 국제협력본부, 글로벌사회공헌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시아연구소는 다년간 진행해 온 방문학자 연구 공간 통합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소 대전제의 공간적 재현의 일환으로서, 공간 통합과 더불어 방문학자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유수의 연구자들을 아시아연구소로 집결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기존의 방문학자 프로그램에서 연구자 커뮤니티 간의 상호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적 변환을 꾀한 방문학자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의 아시아 연구자들을 발굴해 내고자 한다.



‘열린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의 세계적 허브’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9년동안 연구 기관으로서 서구 중심의 지식 생산 체계를 타파하기 위하여 힘써 왔다. ‘지역과 주제의 결합’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지식 생산을 해왔고, 이제는 축적해 온 결과물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진정한 아시아연구의 세계적 허브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난 2017년은 무엇보다 연구 기관으로서 절대적 확장에 힘쓰기 보다는 ‘열린 아시아연구소’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한 해였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축적과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가 출범하였고, 더 많은 대중들이 아시아와 관련된 현재적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많은 연구자들과 연구 과제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한 수문을 개방하였다. 이 모든 재정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하여 지난 해 말, 더욱 전문화된 구조로 개편된 연구행정지원실이 든든한 행정 엔진이 되어줄 것이다.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소는 국내의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 및 경제, 산업계 등 지식사회가 요청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회의 성장 발전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이 대형 단계로 진입하여 '아시아도시센터'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로써 4개 지역 연구센터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5개 주제 연구프로그램의 연구와 활동을 통해 SSCI급 논문 게재 및 단행본 출간등의 성과를 거뒀다.





동북아시아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상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핵위기로 대표되는 북한의 상황 등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해당 사회 내부 및 상호 간의 관계에 불러일으킨 작용 전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를 '관계와 연동'의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을 기본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 투어리즘 연구와 동북아시아센터 전 지구적 맥락에서의 북한연구

연구 주제

2017년 동북아시아센터에서는 '아시아 여행하기와 지리적 상상'이라는 주제 하에 아시아 투어리즘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북아시아센터는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요우커(遊客, tourist를 가리키는 중국어) 현상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주변국에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의 실상을 구명하였다. 동아시아의 요우커 연구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여행자의 장소에 대한 이미지와 시선, 진정성, 여행 경험 등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핵위기로 대표되는 북한 상황은 흥미 간 세력 전이를 둘러싼 지역적 갈등의 집약적 표현인 동시에 중대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내적 갈등 및 대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북유럽 지역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북한을 탈악마화하기 De-demonizing North Korea)를 통해 '비이성적 불량국가'라는 단면적 이미지로 고착된 북한의 이미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의 재균형을 시도하였다.



몽골 문화주간 학술제 기념촬영

2017 주요 성과

2017년 동북아시아센터에서는 동아시아 투어리즘 연구를 통해 기존의 관광연구에서 많이 다룬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넘어서 관광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관광객들의 시선과 이미지, 여행 경험에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 요우커들의 해외여행 붐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을 육성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샤오강(小康)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동아시아 투어리즘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여행자들이 갖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와 현지문화에 대한 인식, 소비문화와 소비특성, 여행 체험과 가치 등에 대해 연구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물이 <아시아 투어리즘: 아시아 여행과 지리적 상상>(진인진)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더불어 동북아시아센터에서는 "광활한 초원, 21세기 유목민의 나라 몽골"이라는 주제로 2017 몽골 문화주간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였다.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몽골 문화주간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국-몽골의 상호협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대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문화행사로서 여행기 공모전 및 발표, 풍물전시, 몽골 전통 캘리그래피 전시, 전통가옥 게르 체험 등을 통해 몽골의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와 협력하여 'De-demonizing North Korea'라는 주제 하에 국내외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은 북한에 대한 편견과 편향된 관점들을 밝히는 담론 분석을 하였다. '한국에서 본 북한'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북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본 북한'을 주제로 북한에 대한 담론지형을 분석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6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는 북한'에 대한 담론과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향후 계획

2018년도에는 아시아지역리뷰사업을 통한 아시아의 교류, 협력, 통합 연구리뷰사업을 아시아연구소의 중앙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서아시아센터, 남아시아센터 및 도시사업단과 함께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구상 중인 동북아시아센터의 새로운 연구 영역들을 아시아지역연구소 협의회의 활동과 더불어 확장해 나간다. 또한 이와 동시에 동북아시아에 집중하는 연구로 1) 미국-동북아시아 간 무역과 화폐분쟁을 다룬 단행본의 마무리 작업 및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보호주의가 세계무역질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집필, 2) 한국의 대외정책의 패러독스를 주제로 해외 석학들과의 저서 공동 집필, 3)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동지역에서의 팽창을 분석한 논문 집필, 그리고 4)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수입 지역인 중동과 셰일가스 혁명에 힘입어 에너지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을 둘러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과 그 정치 경제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복수의 논문 출판등이 계획되어 있다.

주요 연구 성과 목록

- 이정훈(2017). <중국 일상 속 복한 이미지>. 진인진
- 남은영 외(2018). '가족가치관의 변화: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선택적 가족주의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 진인진
- 이정훈(2017).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문제 인식. **아시아리뷰** 제7권 제1호
- 이정훈(2017). 1990년대 중국의 민족주의 확산과 단행본 출판 -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과 '앵그리 차이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 이정훈(2017). 자장커 영화의 궤적과 <天注定>의 새로운 시도. **중국어문학지**
- 이정훈(2017). <山河故人>과 자장커 영화의 변곡점. **중국현대문학**
- 남은영(2018). 한국과 일본의 삶의 민족 비교 연구 - 사회통합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1호
- 남은영(2017). 한국에 대한 오푸커들의 시선과 여행 체험. **아시아리뷰** 제6권 제1호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II



몽골문화주간 여행기 공모전 수상자 및 심사위원



사람들

- 디렉터: 이정훈(중어중문학과)
- 공동연구원: 남은영(아시아연구소)
- 연구보조원: 이수진(서울대), 송향경(서울대), 최중환(북한대학원대학교)

2017년 한국사회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위상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감지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4강에 준하는 지위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 아세안은 제2의 무역상대국, 제2의 투자대상국이며, 인적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향후 동남아시아센터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심화연구를 계속 진행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한국사회에 알리는 일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동남아 이슬람 경제원리는 지금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성을 갖는가?

동남아시아센터

연구 주제

2017년 동남아시아센터는 변화의 시기를 지나왔다. 2012년부터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라는 거시 주제하에서 1단계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전략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와 2단계 '소비문화연구와 소매유통시장 속의 소비자 전략 연구' 연구단계를 최종적으로 마쳤다. 또한 본 신흥지역사업 후속연구과제로 '해외진출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작용 연구에 기반 한 현지화 전략의 구축과 실행: 동남아 VIP 국가를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나, 본 연구센터가 아닌 다른 연구공간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메콩유역 수자원 거버넌스와 개발협력의 모색' 연구팀도 3년의 연구 기간을 최종적으로 종료하였다. 동남아시아센터는 이러한 기존 연구주제들이 종료를 예고하는 과정에서 2017년부터 '동남아 이슬람경제'라는 새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센터의 새로운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2017 주요 성과

2017년 동남아시아센터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개인 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맛과 멋, 공간 그리고 할랄>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인도네시아 로컬음식의 상업화, 미용산업, 하이브리드 편의점, 물링현상, 전자상거래, 도시관광과 말레이시아 화인의 음식소비, 할랄소비와 할랄인증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 연구팀은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아세안 소비시장, 소비문화를 연구했고, 이러한 내용은 한국 소비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동남아 비즈니스학'을 성립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메콩연구팀은 '메콩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협력을 위한 초국적 거버넌스 방안의 심화와 확산연구'라는 3차 연도 연구주제에 따라 각 연구자가 학제적 분석을 통하여 메콩 거버넌스 개선과 창출을 위한 '이익공유, 국경무역, 법제도적 협력방안 제시, 한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 메콩유역 거버넌스 협력'이란 연구주제를 다루었고, 실천적 대안과 향후 과제도 제안했다.

2017년 동남아시아센터는 '동남아 이슬람경제'를 새로운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 할랄식품, 할랄인증제, 할랄인증제를 둘러싼 국내 및 국제정치, 할랄소비 등 관련 이슈를 다루었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경제의 핵심 영역인 이슬람 금융을 학습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전통적(conventional) 금융시스템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성을 찾을 수 있다. 이자(riba)의 금지, 불확실성(gharar)의 회피, 사회복지(maslahah)는 이슬람 경제윤리 핵심이고, 이러한 특징들이 현재의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대안성으로 논의될 수 있다.



향후 계획

기존 신흥지역연구팀과 메콩연구팀의 사업 종료로 2018년 동남아시아센터는 새로운 연구주제로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에너지-식량 접근에 기초한 메콩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주제로 2018년 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이슬람경제에 관한 기반구축 사업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핵심 주제로 선정하여, 더 심화된 학습과 유기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2108년 동남아시아센터는 ‘동남아 Awareness 프로젝트’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에 교내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동남아 열린 강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있어서 ‘동남아적 요소’가 상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 오명석 외(2017).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맛과 멋, 공간 그리고 활달>. 진인진 최경희 외(2017). <동남아의 이슬람화 2>. 농민출판사
- 엄은희(2017).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CSR. <한국지리학회 제6권 제3호>
- 엄은희·신동혁(2017). 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4호>
- 이지혁(2017).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의 세계 해양 중심국 비전과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대한 정치경제적 고찰. <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 이지혁·이수현(2017). 인도네시아 하이브리드 편의점의 태동과 소비문화. <동아연구 제36권 제1호>
- 정범모(2017). 필리핀 2016-선거와 경제발전 그리고 자주외교.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 정범모(2017). 초법적 실패, 위험관리의 이웃소싱?—필리핀 주민지도자의 죽음을 사례로. <아시아연구 제20권 제2호>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한-아세안센터 특별강연



한-아세안센터 열린강좌 시리즈-제4차 산업혁명과 아세안 시장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형준(강원대), 유창조(동국대), 이응철(덕성여대), 윤순진(환경대학원, 메콩연구책임자), 이승호(고려대), 이상국(연세대), 이요한(한국외대)

선임연구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이지혁(아시아연구소), 정범모(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노미영(성신여대), 김술아(서울대), 크리스나 싱 쿠마르(서울대), 신동혁(서울대), 유주연(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는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슬람이라는 틀로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전통생활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향후 연구과제 발굴과 중앙아시아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슬람, 중앙아시아 한인 독립운동가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와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사회 현상으로서의 이슬람

연구 주제

2017년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 형성 도구로서의 이슬람 연구: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이슬람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국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발현되는 이슬람의 특징과 역할을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러시아와 소련 정권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이 이루어졌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슬람 정책, 급진이슬람운동단체, 할랄 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카자흐스탄 청년 무슬림들의 종교의식과 공립학교 히잡금지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카자흐스탄 이슬람의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전통생활문화 총서와 DB 구축 사업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에서 고려인 단체와 고려인들과 인터뷰를 수행하며 사진과 영상, 텍스트 자료를 수집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동북아의 지역적, 쌍무적, 3자협력 차원으로 다층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한러 관계 발전과 신동북아질서 형성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KYZYLORDA) 광장

중앙아시아센터

2017 주요 성과

2017년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 사회현상으로서 이슬람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선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가 설치한 오렌부르크총무원의 설립 배경과 의의, 그리고 이후 소련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기 무슬림 총무원 설치를 통해 꾀했던 이슬람 정책의 변화를 분석했다. 한편 급진이슬람운동이 비교적 늦게 발현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급진이슬람운동의 동원잠재력과 활동전망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역사교과서의 이슬람 서술에 대한 분석과 우즈베크인의 일상에서 존재해온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공식-비공식 이슬람 구도의 특징을 연구했다. ‘사리아와 이슬람 윤리’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이슬람의 발원지인 중동 이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공통점과 지역적 특징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유라시아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부상, 중앙아시아 국가의 역사적 형성, 민족 갈등, 경제, 정치적 현안과 이주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집약한 단행본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이 출판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년들의 전통문화 인식과 민족정체성 형성에 역사적 조국인 한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2015~2017년 수행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총서와 DB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를 담은 총서 1, 2권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우즈베키스탄>이 출판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를 동아시아 지역과의 연계관계 속에서 개괄한 <러시아 극동의 역사>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향후 계획

중앙아시아의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개별 연구문헌을 종합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선택'을 주제로 2권의 단행본을 출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전통생활문화 연구'를 주제로 한총서 4권도 출판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센터가 기반 구축 과제로 수행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사회현상으로서의 이슬람'이라는 주제를 심화하고, 그 공간적 범위도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까지 확장하여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물, 사람, 자본, 문화의 이동과 흐름을 포착해내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탈냉전 이후 냉전 구도 속에서 경직되어 있던 중앙아시아의 등장과 그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빚어내는 현상을 '21세기 실크로드'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이 현상이 과거 실크로드를 둘러싼 상호작용과는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 신범식 외(2018).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뒀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진인진
- 강정원 외(2017).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카자흐스탄>. 민속원
- 강정원 외(2017).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우즈베키스탄>. 민속원
- 양승조 역(2018).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진인진
- 고가영(2017). 2차 대전이 중앙아시아 무슬림종무원(CAIM)의 설립과 활동에 미친 영향. **슬라브학보** 제32권 제1호
- 김태연(2017). 포스트 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 양승조(2017). 18세기 말-19세기 중반 제정 러시아의 대카자흐 정책과 이슬람-오렌부스크 이슬람종무원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32권 제4호
- 오원교(2017).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 **러시아연구** 제27권 제1호
- 최아영(2017). 우즈베키스탄 역사교과서의 이슬람 서술 분석. **슬라브학보** 제32권 제1호
- 최아영(2017).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년 세대의 전통문화 인식 연구: '한국' 요소가 미친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32권 제4호



우즈베키스탄 언론인 간담회



2017년도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센터 학술회의



사람들

디렉터: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강정원(인류학과), 김태연(노어노문학과), 남영호(신한대), 오원교(경북대), 윤익중(한림국제대학원대), 이선우(전북대), 정형호(전북대),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세르게이 세바스티야노프(러시아 극동연방대)

전임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박종요(서울대), 사르다나 루미안체비(서울대), 소하바 유수포바(서울대), 육성수(한국외대), 이금강(서울대), 이수유(서울대), 이하연(서울대), 최 리(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Center for Asian Cities)는 도시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도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발전주의 도시화에 의해 발생한 동아시아 도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포스트 영토주의(post-territorial)와 탈(脫)성장주의 관점에서 모색하려 한다. 궁극적으로 본 센터는 학술적 우수성과 실천적 해결 능력을 겸비한 아시아 도시연구의 프런티어를 지향한다.

공유-평화-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도시성 모색

아시아도시센터

연구 주제

2017년도 아시아도시센터는 지난 3년간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 연구(SSK)지원사업 중형단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 9월부터 대형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SSK 대형단계의 진입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연 아시아도시센터는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 평화, 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연구의제 하에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의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성을 1) 포용적 공유도시(Inclusive, Commoning Cities), 2) 저성장 회복도시(De-growth, Resilient Cities), 3) 지속가능 전환도시(Sustainable Cities for Transition), 4) 탈냉전 평화도시(Post-cold War Cities of Peace)라는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탐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도시센터는 1) 국가적 영토성보다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중 스케일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2) 투기화된 도시개발을 추동하는 영토화된 배타적 소유권에 저항하는 공유적 실천을 강조하며, 3) 성장지향적 생산주의를 뛰어넘는 탈성장주의 도시화 방안 탐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포스트 발전주의적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한다.

2017 주요 성과

2017년 아시아도시센터의 가장 주목할 성과는 단행본 출간이다. 대표적으로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는 한국의 도시화를 강남화로 규정하고, 1) 물리적으로 건설하고 담론적으로 재현하는 ‘강남 만들기’, 2) 이를 기반으로 신도시 건설 속에서 전개되는 ‘강남 따라하기’라는 두 가지 과정의 결합을 강남화로 개념화하여, 서울 강남, 분당, 대구, 부산 등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한 역작이다. 중앙일보, 한국일보를 비롯한 유력 언론매체에 소개되면서 한국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동아시아 예외공간의 대표적 형태인 경제특구를 다룬 <특구>,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위험경관의 구성을 살펴본 <위험도시를 살다>, 그리고 압축적 도시화의 이면을 공공공간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공공공간을 위하여>가 출간되었다. 끝으로 단독 저서인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는 냉전과 분단의 영향을 받은 남북한이 도시화의 측면에서 서로 엇갈리면서도 닮아가는 기묘한 양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아 제18회 한국사회학회 학술 저서상을 수상하였다.

단행본 출간과 더불어 박배균 센터장은 공동연구원인 Jamie Doucette 교수와 함께 <Critical Sociology>에 특집호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를 기획했고, 여러 공동연구원이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등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아시아도시센터 전체 워크숍



향후 계획

포용적 공유도시팀은 부동산의 시민자산화와 토지은행제도의 실현 방안 연구와 함께, 동아시아 도시의 포용성을 증진하고 상생적 공유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 학자,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 전략을 발굴할 것이다. 탈냉전 평화도시팀은 동아시아의 군사기지 도시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지 이전과 신설을 둘러싼 갈등과 평화도시를 표방하는 한국의 동두천, 파주, 인천과 일본의 히로시마, 오키나와를 사례로 평화도시 담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저성장 회복도시팀은 지정-지경학적(geopolitical economic) 관점에서 동아시아 산업도시들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산업-노동구조 측면에서 각 도시의 경제적 회복력 연구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전환도시팀은 댐 건설, 매립, 간척을 통한 '정치-생태적 도시화'와 기후변화시대의 전환도시 사례를 연구한다.

연구 성과 목록

- 박배균·황진태(역음)(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동녘
- 이상현·김은혜·황진태·박배균(역음)(2017). <위험도시를 살다>. 알트
- 박배균·이승욱·조성찬(역음)(2017). <특구>. 알트
- 장세훈(2017).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알트
- 김동완(역음)(2017). <공공공간을 위하여>. 동녘
- Park, B. G. (2017). New spatial readings of the state.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5(1).
- Doucette, J., & Park, B. G. (2017).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 Geopolitical economies, spaces of exception, and networks of expertise. *Critical Sociology*.
- Shin, H. B. (2018). Urban movements and the genealogy of urban rights discourses: The case of urban protesters against redevelopment and displacement in Seoul, South Korea.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08(2).
- Choi, Y. J., & Glassman, J. (2017). A geopolitical economy of heavy industrialization and second tier city growth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the 'Four Core Plants Plan'. *Critical Sociology*.
- Lee, S. O., Wainwright, J., & Glassman, J. (2017). Geopolitical economy and the production of territory: The case of US-China geopolitical-economic competition in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오키나와 국제대학사토 매니저 교수의 일본 미군기지 갈등에 관한 발표 후 아시아도시센터 평화도시팀과의 기념촬영



한국공환경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의 도시재생 토론회

사람들



디렉터: 박배균 교수(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김동완(경남대), 김용창(지리학과), 김은혜(히토츠바시대), 박인권(서울시립대), 박철현(국민대), 신현방(런던정경대), 신혜란(지리학과), 이상현(한신대),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전흥규(오사카시립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상현(경희대), 지주형(경남대), 최영래(플로리다국제대), 최영진(교육종합연구원), 제이미 두셋(맨체스터대), 짐 글래스만(브리티시컬럼비아대), 쉬진위(대만국립대)

전임연구원: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오근상(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위촉연구원: 강수영(아시아연구소), 한윤애(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박지혁(서울대), 송은영(서울대), 이동광(서울대), 이민주(서울시립대), 최하니(서울대), 홍예륜(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료의 수집과 보급을 선도하고 공유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한국의 대표적 데이터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한 KOSSDA는 자료공유 협약기관들과의 공유 네트워크를 공고히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로 발전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자료공유 생태계 조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연구 주제

2017년도 KOSSDA(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는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자료공유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자료 수집과 보급, 교육, 연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다. 전국의 주요 자료산출 기관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고, 데이터페어와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소장자료의 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특히 신규 웹사이트 개설에 맞춰 100여 개의 자료공유협약기관과 재협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자료분석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KOSSDA는 DB 구축 및 지표 개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사회과학 분야 DB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며,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 발간 사업도 완수하였다. 또한, 아시아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시아 7개국 이 공동 수행하는 사회적 웰빙 조사연구와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협력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7 주요 성과

KOSSDA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으로, 2018년 2월 현재 조사자료 2,326건과 질적자료 211건의 DB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OSSDA는 자료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페어와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 데이터페어에서는 한국의 패널조사 25주년을 맞이하여 패널조사수행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패널조사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생애주기별 패널조사’를 주제로 아동, 청소년, 청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제4회 데이터페어에서는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를 주제로 개최하였는데, ‘삶의 질’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기에 많은 관심과 호평 속에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대학(원)생들의 경험연구 역량을 함양하고 KOSSDA 소장자료의 활용을 장려하고자 시행한 논문경연대회에는 완성도 높은 세 편의 석·박사학위논문들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서 동시 진행되는 KOSSDA 방법론 교육은 2017년에 총 4강좌, 하계 7강좌, 추계 4강좌, 동계(2018년) 8강좌 등 총 23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860명이 수강하였다.



KOSSDA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사회과학 분야 DB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통계청의 연차적 통계 서술형간행물인 <한국의 사회동향> 2017년도 보고서 발간 사업은 언론에 2백여 번이나 보도될 정도로 정부기관과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센슈대 ‘사회적 웰빙 센터’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사회적 웰빙 비교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고, 한국의 KOSSDA, 일본 SSJDA, 중국 CNSDA, 대만 SRDA 등 4개국의 대표 아카이브들이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공동 아카이브 개설과 지속적인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계획

KOSSDA 발전 비전의 키워드는 ‘역량강화’와 ‘국제화’이다. ‘KOSSDA 2.0’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KOSSDA는 신규 웹사이트 개설과 함께 자료의 질과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이용서비스 개선 및 자료의 보급과 이용확산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사업 등 아카이빙 본연의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더불어 자료공유협약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적 인프라인 아시아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위해 KOSSDA의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더불어 KOSSDA는 국제비교연구 자료의 구축, 아시아 아카이브 협력체인 NASSDA의 주도적 참여, 그리고 아시아 주요 대학 및 기관들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을 넘어 명실공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제4회 KOSSDA 데이터 페어: 한국의 생활시간조사



사람들

디렉터: 이재열(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금현섭(행정대학원), 김봉근(경제학과), 김석호(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신정철(교육학과), 이현정(인류학과), 홍백의(사회복지학과)

전임연구원: 김대훈(아시아연구소), 고지영(아시아연구소), 김혜진(아시아연구소), 신인철(아시아연구소), 이상운(아시아연구소), 진유아(아시아연구소), 최문희(아시아연구소), 한아름(아시아연구소), 허혜옥(아시아연구소)

2017 KOSSDA 주요 업로드 자료

| 자료명 | 기탁기관 |
|------------------------------------|---------------|
| 한국종합사회조사(2003-2016 [누적자료]) |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
|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2016) | 문화체육관광부 |
| 통일의식조사(2015)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통일의식조사(2016)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체류외국인 실태조사(2013) | IOM이민정책연구원 |
| 검시제도에 대한 인식조사(201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서울시 재개발사업 갈등실태 조사(2012) | 한국행정연구원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론조사(2015) | KBS 방송문화연구소 |
|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5)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 한국기업혁신조사(2014)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아산정책연구원 월례 여론조사(2013. 8.-2014.12.) | 아산정책연구원 |
| 유통업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2015) | 국가인권위원회 |
|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2015) | 국가인권위원회 |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실태조사(2015) | 국가인권위원회 |
| HIV 감염인 생활실태 조사(2015) |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 성과 목록

이재열 외(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7년은 아시아연구소 중점연구소의 3단계 1차연도 후반기와 2차연도 상반기에 해당하는 해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점연구소는 마지막 3단계에 접어들어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진행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좀 더 심화된 연구 활동을 통해 전체 중점연구소 사업을 개괄하려 하고 있다. 2017년은 그 마지막 마무리를 시작하는 해로, 소속 연구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아울러 각 연구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큰 틀에서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 주제

2017년도 중점연구소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같이 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힘의 균형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 아래 실질적인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지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주제 의식 아래 세부 주제로 경제분야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물가안정 목표제하에서의 인플레이션율,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재정, 탈북자의 시장경제 동화과정 등을 연구하였고,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동아시아 문화산업과 문화소비, 동아시아 사회생태시스템과 환경협력 등을 연구하였다.

2017 주요 성과

2017년 중점연구소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분야의 세부주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동적 교류와 협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세부주제가 상호 연계되어 경제공동체를 넘어서는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까지도 포괄하는 연구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경제분야의 세부주제를 통해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증대되고, 통합의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실증하고, 사회·문화분야의 세부주제들을 통해 그러한 경제통합이 동아시아 공동체 내부의 사회문화 교류를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양상들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과 통합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간 기업교류의 측면에서 한국의 초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20~23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ICAS(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n Scholars)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다양한 통합양상들을 실질적이며,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지수 개발연구에도 착수하여 관련 공동연구원들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2017 ICAS 한국어 학술우수도서상 시상식(치앙마이)



2017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



향후 계획

2018년 중점연구소는 2017년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수집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2017년의 연구성과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한 해로 삼을 것이다. 2017년에 진행한 각각의 세부주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제들을 발굴하여 2017년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경제분야에서는 탈북자의 사회적 자본과 시장경제 지지도에 대한 연구, 더욱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연구, 동아시아의 복지재정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재정구조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신흥권력의 부상과 국가역할, 아시아 투어리즘, 동아시아 사회생태시스템 개발과 환경협력 연구의 심화, SDG와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 아시아태평양양력리지 프로그램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김재영(경제학부)

전임연구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유미(아시아연구소), 김종호(아시아연구소), 고일홍(아시아연구소), 박준의(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한승목(서울대),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

연구 성과 목록

- 김병연(2017).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재영 역(2017). <크루그먼의 경제학 제4판>. 시그마프레스
- 이철인 외(2017). <거시경제학 제4판>. 홍문사
- 안유숙·허동숙·박수진(2017). 국유림의 경제적·환경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가리왕산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3호>
- 김인준·김성현·김소영·김진일·신관호(2017).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제23권 제1호>
- Hunegnaw, F. B., & Kim, S. (2017). Foreign exchange rate and trade balance dynamics in East African countrie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26(8).
- Kang, Y., Kim, B., & Lee, J. K. (2017). Interaction among new firm formation, privatization, and business environment in transition countri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30(2).
- Kim, Y., Tanaka, K., & Zhang, X. (2017). A Spatial analysis of the causal factors influencing China's air pollution.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11(3).
- Kim, Y., Tanaka, K., & Matsuoka, S. (2017).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he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7(1).
- Kim, S., & Mehrotra, A. (2017). Managing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objectives in inflation targeting economies in Asia and the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29.
- Jeong, M., Kang, J., Kim S. (2017).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shocks in Japan, Korea, and China. *China Economic Journal*, 10(2).
- Kim, B. Y., & Shida, Y. (2017). Shortages and the informal economy in the Soviet republics, 1965–89. *The Economic History Review*, 70(4).
- Jung, Y., Kim, S., & Yang, D. Y. (2017). Optimal macroprudential policies and house prices in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3(11).
- Kim, J., & Kim, S. (2017).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farm prices and exchange rates in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3(11).
- Mo, Y., Lee, D. K., Song, K., Kim, H. G., & Park, S. J. (2017). Applying topographic classification, based on the hydrological process, to design habitat linkages for climate change. *Forests*, 8(12).
- Kim, Y., Tanaka, K., & Ge, C. (2017). Estimating the provincial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hina: A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pproach. *Stochastic Environmental Research and Risk Assessment*, 1(17).
- Kim, J. Y., Ahn, D. H., & Ko, E. Y. (2017). Bond spreads, market integration and contagion in the 2007–2008 crisis. *Seoul Journal of Economics*, 30(1).
- Kim, S. Y., Min, K. H., & Lee, Y. S. (2017). Financial globalization and financial effective exchange rate in Korea.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ics*, 28.



미·중관계 프로그램(PUCR)은 미·중 관계에 대한 학술 및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허브의 형성을 지향한다.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와 정책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월례 세미나와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좌표

미·중관계 프로그램

연구 주제

2017년도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한국에의 함의”이었다. 2009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외교’(assertive diplomacy)가 더 이상 가상이 아닌 실제 상황이 되고 있는 바, 동아시아 15개국이 2010-16년의 기간 동안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어떤 좌표를 설정해 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가 중국에 저항하는 ‘균형’, 중국에 대체로 순응하는 ‘편승’, 그리고 ‘위험분산’ 전략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2017년도에 이 중 10개국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여타 국가들의 전략적 좌표 설정의 논리를 통해 Post-THAAD 시대의 한국 외교에 대해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계획

2018년의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2017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 본 연구가 완료되면 두 편의 학술논문을 *International Security*와 *Pacific Review* 라는 SSCI 저널에 투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년 간 도합 세 차례 개최되었던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라운드 테이블 시리즈를 지속하여 그 결과물을 하반기에 출간할 예정이다. 또 『제7차 한·일 중국정세 대화』를 동경대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할 예정이며 2016년에 두 차례 개최했던 북경대 국제관계학원과의 워크숍도 새로이 열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개국 학계 및 정책 서클 간에 미·중 관계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2017 주요 성과

2017년의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로는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연구성과물로서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사례와 평가』의 출간을 들 수 있다. 동 서적은 ‘미·중 사이의 한국’ Round Table Series를 통해 제시되었던 문제의식을 심화 및 발전시켜 7인의 전문가들과 함께 출간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는 1) TPP/RCEP의 참여, 2) AIIB의 가입, 3) CICA에 대한 입장, 4) 베이징 전승절(V-Day)의 참석, 5) 사드 배치, 그리고 6)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한 한국의 결정에 대한 평가를 실고 있다.

2017년에는 우리 프로그램의 signature program인 월례 세미나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일본 동경대 안보연구센터와 공동 개최해온 학술·정책 워크숍 『한·일 중국정세 대화』의 여섯 번째 회의도 성과 중 하나이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2017년도에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을 주제로 한 2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동아시아 15개국이 중국에 대해 각각 ‘균형’·‘편승’·‘위험분산’ 중 어떤 전략적 좌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성과 목록

- 미·중관계연구센터(편)(2017).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사례와 평가>. 도서출판 코보
- 정재호(2017). 지정학적 변화. (정구현 외 공저)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서울: 클라우드나인)
- 정재호(2017). 총체적 평가와 제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미·중관계연구센터(편),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사례와 평가>
- 김헌준(2017). From "A National Legacy of Unutterable Shame" to National Sorry Day: The Changes in Australia's Policy on Indigenous Population. *동서연구* 제29권, 제1호
- 김헌준(2017). 전환기 정의 규범의 확산과 그 효과. *한국정치연구* 제26권, 제1호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헌준(고려대), 함명식(길림대)
 연구보조원: 이영준(서울대), 윤동준(서울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을 선진국의 발전궤적과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아시아 내부의 다양성을 인지하여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및 국제교류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를 통한 거버넌스 연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연구 주제

2017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거버넌스 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험적, 이론적 연구를 축적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를 지역 현장, 세미나 및 워크숍, 학술회의 등에서 공유하며 연구 내용을 심화 및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2017년도에 국내 연구는 상반기에 관악구의 시민정치, 하반기에 시흥시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기획연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을 마련함으로써 아시아 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동의제와 그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향후 계획

본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및 아시아 각국의 시민참여, 사회혁신, 협치, 사회적경제 등 민주주의의 혁신을 큰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 정책, 조직, 활동 등 다양한 사례 발굴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간의 선택적 친화성 여부와 같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학계와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연구 및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고, 관련된 연구 발표 세미나 및 성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 김의영·이수현·이유진·이재인·이정환·차영훈·최현주(2017).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 관악구 사례. **OUGHTOPIA** 제32권 1호
- 이태동·김의영·서정건·유인태·손효동·안정배(2017).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신뢰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2호
- 이원동·최명식(2017). 지역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GUCI)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93권
- 김도형·이나경·김지호·임기홍·이원동·김의영(2017).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학 - 서울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5호

2017 주요 성과

2017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관악구의 시민정치, 하반기에 시흥시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관악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지역 시민활동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6가지 이슈(교육,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의정감시, 참여예산제, 환경)를 선정했고, 연구원 및 연구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철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5월에는 ‘관악 시민의 밤’이라는 민-관-학 협력의 행사 개최를 도왔으며 연구 결과를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저서를 본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물로 공유하고자(관악구의 시민정치)를 출판할 예정이며, 2018년 3월에 출간된다.

시흥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환경, 복지, 산업, 문화, 도시라는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다만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시흥시 공무원, 실무자,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구체적 정책 제언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보다 실천적인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9월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학생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술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아시아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연구와의 협업으로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이로써 후속 연구를 통해 하나의 출판물로 심화 발전시킬 계획의 시작단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워크숍을 통해 기존에 진행한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 연구를 공유하였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부터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6월에 국제노동기구(ILO)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한 제8차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에 국제노동기구의 국제교육센터(ITC),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함께 본 프로그램을 공동 주관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사람들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안도경(정치외교학부), 미우라히로키(한국정치연구소)
 연구보조원: 신이수(서울대)

시민사회프로그램(PC)은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 비교 연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아시아 시민사회 그리고 지구 시민사회로 크게 세계의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 학술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한국 시민사회와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다층적 접근

시민사회 프로그램

연구 주제

2017년도 시민사회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는 크게 한국 시민사회와 아시아 시민사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전년도에 진행한 '한국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기획 연구와 지난 2년 동안 수행한 한국 시민사회의 풀뿌리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내용을 연구 결과물로 정리, 발간하고자 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아시아 시민사회 DB 구축 연구와 한일 CSR 연구 협력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의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였다.

향후 계획

본 프로그램은 한국 아시아, 지구 시민사회의 세 영역별로 기존의 연구를 확대 발전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 시민사회 연구로는 <한국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의 후속 연구로서 '한국 NGO 위기: 조직 민주주의 위기 분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연재한 기획 시리즈 '마을이 답이다'를 단행본(가제: <마을이 답이다 - 풀뿌리 운동의 재생>)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둘째,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로서 NGO Advisor가 선정한 '아시아 지역 500 NGO'를 대상으로 국가, 지역 및 영역별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며, 특별히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5개 권역별 NGO 활동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국제비교를 통해 본 지속가능성 모델 정립' 연구를 개발 및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2017년부터 진행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구 시민사회 연구는 주요 NGO들의 초국적 연대활동을 '지구정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2017 주요 성과

2017년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기획 연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에 최근 새롭게 부상한 도전과 대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시민참여, 사회운동, 사회적경제, 개발협력, 지역정책 갈등, 노동, 기업, 인권 이슈를 분석한 단행본이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시민사회 관계 분석틀로 한국 비영리섹터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의 미시적 차원에서 대안 찾기 노력을 '마을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월간중앙>에 9회 연재를 마쳤다.

또한, 2017년에는 아시아 NGO 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력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아시아 지역 NGO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약 800개), 이들 단체의 기초정보, 미션, 주요활동,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해당 DB는 아시아 NGO 디렉토리북으로 정리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국제학술네트워크 구축 성과로는 2017년부터 '한-일 연구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는 6개 영역(인권,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소비자)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6명이 지역 커뮤니티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3월과 9월에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에 부산에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arching for Alternatives in Future Society를 개최하였다.

연구 성과 목록

- 공석기 외(2018). <한국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진인진
- 임현진(2017). <비교사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진인진
- 김영춘(2017). 소셜벤처의 조직화와 제도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5호.
- 김태균(2017). 조력자에서 주창자로: 한국 국제개발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담론201 제20권 제3호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공동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정영신(제주대)
 연구보조원: 김태연(서울대), 유지연(서울대), 진다연(연구연수생), 신재술(연구연수생)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CAGEO)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을 연구하고,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융합적 학술연구 저작과 국내외 학술교류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연구센터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연구 주제

2017년도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통상, 기술 개발과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적 분쟁 등의 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국제경제질서 관련 이해관계 대립 및 조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그리고 규범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향후 계획

본 프로그램에서는 2018-2019년에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위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방향에 대한 실증적·규범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진을 초빙하여 매 학기 3~4회 CAGEO의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센터 연구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교류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하반기에는 가장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국제무역체제 -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혹은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과 세계경제질서' 등과 같은 제목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 목록

박지형(2017).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안덕근(2017). 국제통상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성과.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이지홍·임현경·정대영(2018).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 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 기술별 비교 분석, 1976-2015. **경제분석**
 Kwon, S. W., Lee, J. H., & Lee, S. B. (2017).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ical progress: Stylized facts from patent citations, 1980-2011. *Economic Journal*, 127.
 Shin, W. K., & Ahn, D. G. (2017). Firms responsive behaviors in WTO trade disputes: Countervailing cases on Korean DRAMs. *Journal of World Trade*, 51(4).
 Shin, W. K., Ahn, D. G. (2018). Trade gains from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rld Trade Review*.
 Park, J. H., Ahn, D. G., Lee, J. H., & Kwon, K. H. (Forthco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WTO safeguard actions. *Journal of World Trade*.



사람들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안덕근(국제대학원)
 공동연구원: 이지홍(경제학부), 서명환(경제학부), 이재민(법학전문대학원)
 연구보조원: 김종주(서울대), 곽창현(서울대), 오령하(서울대), 권혁수(서울대), 이상민(서울대)
 객원연구원: 노재연(숙명여대), 김민정(KDI국제정책대학원)

2017 주요 성과

2017년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주요 연구주제인 '혁신·창조 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창조 활동에 관한 데이터 구축 및 지식 개발을 위한 학술 및 정책연구를 계속 진행하였다. 또한 기술진보 관점에서 미국특허청(USPTO)에서 1976년부터 출원된 500만개 이상의 특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허인용 지수를 분석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 통상체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가전제품을 상대로 발동하여 수출 주도형 아시아 국가들에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세이프가드(safeguard)' 및 여러 수입제한조치가 한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사례를 통해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 WTO 통상분쟁 및 중국 시장으로의 투자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기업 차원의 통상대응의 효과를 분석하고, WTO에서 제기된 통상분쟁의 법적 판결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이프가드 제도 운용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용 패턴 차이 등에 관하여 통상 제도적, 경제학적, 실증분석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연계 활동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아시아 국가의 TBT 대응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 및 실패 사례 발굴, 연구하는 한편, 전문인력양성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문서적 출판, 대학, 대학원, 일반연구자 대상의 논문대회 개최, 대학원 정규강좌 개설, 전문가 특강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에서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의 구체적 인 사례를 분석, 연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센터 연구 역량의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논문대회와 TBT 특화과정의 개설은 기술 표준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해당 상호작용을 복잡계적 시각에서 모의하는 다행위자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구축하고, '아시아 공통 가치로서의 풍수'라는 표제하에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하는 전통지식 및 경험과학 체계로서 풍수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환경인식을 정립하는 동시에 이러한 복잡계 및 사회생태시스템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 DB를 구축, 아시아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다행위자 토지이용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각종 연구를 수행해왔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융합을 통한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협력 프로그램

연구 주제

2017년도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모두 3개 주제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아시아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보완과 더불어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지역환경 연구의 기초자료 생성작업이다. 둘째는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작업이다. 2017년 2월 18~22일에는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를 위한 IPBES(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아시아지역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세 번째로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환경인식체계로서의 풍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연구소를 주축으로 2016년부터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지리학대회에서 '한국 풍수연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특별 세션을 조직하여 각 분야의 한국 풍수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 풍수의 쟁점, 향후 비전과 연구방법 등을 토론하였다.

향후 과제 및 비전

2018년도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아시아지속가능토지이용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차원의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연구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또 하나의 과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전통지식 및 경험과학 체계로서 풍수를 재해석하고, 이를 '아시아 공통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풍수 원리를 국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풍수에 대한 관심이 개인 연구자 차원의 노력에 머무르는 국내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풍수의 현대 지리학적 재해석>, <현대 풍수학개론> 등의 저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7 주요 성과

2017년도 환경협력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IPBES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태계서비스 평가작업과 Future Earth가 추진하는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한 것이다. 전자는 환경정책분야, 그리고 후자는 연구분야에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국제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 인류가 당면한 기후와 환경의 전 지구적 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 프로그램이 지난 5년간 구축해온 아시아 지역의 공간정보는 현재 아시아연구소가 추진하는 '아시아지역정보센터(Asia Regional Information Center)'에서 공간 및 사회경제, 그리고 환경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축적된 이 자료가 아시아 지역이 가진 다양성과 더불어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료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전통환경지식으로서 풍수를 현대화하는 작업은 <현대 풍수학개론>과 <풍수의 현대 지리학적 재해석>이라는 두 권의 책을 집필하는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을 위해 경관생태학, 종교학, 역사학, 지리학, 건축학, 지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풍수 전반에 관한 담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이도원(환경대학원), 최원석(경상대), 김대현(서울대)
 연구보조원: 이승진(서울대), 차지현(서울대)

2017 SNUAC 연구성과

[단행본]

<ㄱ>

강정원 외(2017).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카자흐스탄>. 민속원

강정원 외(2017).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우즈베키스탄>. 민속원

공석기 외(2018). <한국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진인진

김동원(역음)(2017). <공공공간을 위하여>. 동녘

김병연(2017).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재영 역(2017). <쿠르그먼의 경제학 제4판>. 시그마프레스

<ㄴ>

남은영 외(2018). '가족가치관의 변화: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선택적 가족주의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 진인진

<ㄹ>

마·중관계 연구센터(편)(2017). <마·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사례와 평가>. 코보

<ㅁ>

박배균·황진태(역음)(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동녘

박배균·이승욱·조성찬(역음)(2017). <특구>. 알트

<ㅂ>

신범식 외(2018).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진인진

<ㅇ>

양승조 역(2018).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진인진

오명석 외(2017).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 맛과 멋, 공간 그리고 활발>. 진인진

이상현·김은혜·황진태·박배균(역음)(2017). <위험도시를 살다>. 알트

이정훈(2017).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진인진

이재철 외(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 통계청 통계개발원

이철인 외(2017). <거시경제학 제4판>. 홍문사

임현진(2017). <비교사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진인진

<ㅅ>

장세훈(2017). <생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알트

정재호(2017). <지정학적 변화 (정구현 외 공저) >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서울: 클라우드나인)

<ㅇ>

최경희 외(2017). <동남아의 이슬람화 2>. 불민출판사

[국내 저널]

<ㄱ>

고가영(2017). 2차 대전이 중앙아시아 무슬림종무원(C A I Y M)의 설립과 활동에 미친 영향. 슬라브학보 제32권 제1호

김도형·이나경·김지호·임기홍·이원동·김의영(2017).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향 – 서울시 관악공동조작준비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5호

김영춘(2017). 소설번역의 조직화와 제도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5호

김의영·이수현·이유진·이재민·이정환·차영훈·최현주(2017).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 관악구 사례. OUGHTOPIA 제32권 1호

김인준·김성현·김소영·김진일·신관호(2017).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1호

Kim, J. Y., Ahn, D. H., & Ko, E. Y. (2017). Bond spreads, market integration and contagion in the 2007–2008 crisis. Seoul Journal of Economics, 30(1).

김태균(2017). 조력자에서 추방자로 – 한국 국제개발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담론201 제20권 제3호

김태연(2017). 포스트 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김현준(2017). 전환기 정의 규범의 확산과 그 효과. 한국정치연구 제26권 제1호

김현준(2017). From "A National Legacy of Unutterable Shame" to National Sorry Day: The Changes in Australia's Policy on Indigenous Population. 동서연구 제29권 제1호

<ㄴ>

남은영(2017).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과 여행 체형. 아시아리뷰 제6권 제1호

남은영(2018). 한국과 일본의 삶의 민족 비교 연구 – 사회통합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1호

<ㄷ>

박지형(2017).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ㅇ>

안덕근(2017). 국제통상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성과.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엄은희·신동혁(2017). 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4호

엄은희(2017).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CSR.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제3호

오원교(2017).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 러시아연구 제27권 제1호

이원동·최명식(2017). 지역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GUCI)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93권

이정훈(2017). 자장커 영화의 궤적과 <天注定>의 새로운 시도. 중국어문학지

이정훈(2017).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문제 인식. 아시아리뷰 제7권 제1호

이정훈(2017). 1990년대 중국의 민족주의 확산과 단행본 출판 –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과 '앵그리 차이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이정훈(2017). <山海故人>과 자장커 영화의 변곡점. 중국현대문학

이지홍·임현경·정대영(2018).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 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 기술별 비교 분석, 1976–2015. 경제분석

이지혁(2017).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의 세계 해양 중심국 비전과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대한 정치경제적 고찰. 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이지혁·이수현(2017). 인도네시아 하이브리드 편의점의 태동과 소비문화. 동아연구 제36권 제1호

이태동·김의영·서정건·유인태·손효동·안정배(2017). 대학-지역 연계 수업의 신뢰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2호

<ㄷ>

정범모(2017). 초법적 살해, 위험관리의 아웃소싱? – 필리핀 주민지도자의 죽음을 사례로. 아시아연구 제20권 제2호

정범모(2017). 필리핀 2016 – 선거와 경제발전 그리고 자주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ㄹ>

최아영(2017). 우즈베키스탄 역사교과서의 이슬람 서술 분석. 슬라브학보 제32권 제1호

최아영(2017).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년 세대의 전통문화 인식 연구: '한국' 요소가 미친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32권 제4호

[해외 저널]

Choi, Y. J., & Glassman, J. (2017). A geopolitical economy of heavy industrialization and second tier city growth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the 'Four Core Plants Plan'. *Critical Sociology*. doi/abs/10.1177/0896920517695868

Doucette, J., & Park, B. G. (2017).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 Geopolitical economies, spaces of exception, and networks of expertise. *Critical Sociology*. doi.org/10.1177/0896920517719488

Hunegnaw, F. B., & Kim, S. (2017). Foreign exchange rate and trade balance dynamics in East African countrie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26(8).

Jeong, M., Kang, J., Kim S. (2017).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shocks in Japan, Korea, and China. *China Economic Journal*, 10(2).

Jung, Y., Kim, S., & Yang, D. Y. (2017). Optimal macroprudential policies and house prices in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3(11)

Kang, Y., Kim, B., & Lee, J. K. (2017). Interaction among new firm formation, privatization, and business environment in transition countri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30(2)

Kim, B. Y., & Shida, Y. (2017). Shortages and the informal economy in the Soviet republics, 1965–89. *The Economic History Review*, 70(4).

Kim, J., & Kim, S. (2017).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farm prices and exchange rates in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3(11)

Kim, S., & Mehrotra, A. (2017). Managing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objectives in inflation targeting economies in Asia and the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29.

Kim, S. Y., Min, K. H., & Lee, Y. S. (2017). Financial globalization and financial effective exchange rate in Korea.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ics*, 28.

Kim, Y., Tanaka, K., & Ge, C. (2017). Estimating the provincial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hina: A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pproach. *Stochastic Environmental Research and Risk Assessment*, 1–17.

Kim, Y., Tanaka, K., & Matsuoka, S. (2017).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he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7(1)

Kim, Y., Tanaka, K., & Zhang, X. (2017). A Spatial analysis of the causal factors influencing China's air pollution.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11(3).

Kwon, S. W., Lee, J. H., & Lee, S. B. (2017).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ical progress: Stylized facts from patent citations, 1980–2011. *Economic Journal*, 127.

Lee, S. O., Wainwright, J., & Glassman, J. (2017). Geopolitical economy and the production of territory: The case of US–China geopolitical–economic competition in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doi/abs/10.1177/0308518X17701727

Mo, Y., Lee, D. K., Song, K., Kim, H. G., & Park, S. J. (2017). Applying topographic classification, based on the hydrological process, to design habitat linkages for climate change. *Forests*, 8(12).

Park, B. G. (2017). New spatial readings of the state.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5(1).

Park, J. H., Ahn, D. G., Lee, J. H., & Kwon, K. H. (Forthco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WTO safeguard actions. *Journal of World Trade*.

Shin, H. B. (2018). Urban movements and the genealogy of urban rights discourses: The case of urban protesters against redevelopment and displacement in Seoul, South Korea.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08(2).

Shin, W. K., & Ahn, D. G. (2017). Firms responsive behaviors in WTO trade disputes: Countervailing cases on Korean DRAMs. *Journal of World Trade*, 51(4).

Shin, W. K., Ahn, D. G. (2018). Trade gains from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rld Trade Review*.

올해의 포커스

2017년은 아시아연구소 다양한 학술적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 아시아도시센터의 출범부터 아시아 우수학술도서 전시주간 개최까지 <올해의 포커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조명해 볼 만한 소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시아도시센터 출범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2017년 9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대형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서 아시아도시센터(센터장: 박배균 지리교육과 교수)를 독립, 출범시켰다.

아시아도시센터는 앞으로 4년간 총 18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임연구 인력 4명과 국내외 공동연구원 18명의 참여로 진행된다. 지난 중형단계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 평화, 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연구의제 하에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의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성을 1) 포용적 공유도시(inclusive, commoning cities), 2) 저성장 회복도시(de-growth, resilient cities), 3) 지속가능 전환도시(sustainable cities for transition), 4) 탈냉전 평화도시(post-cold war cities of peace)라는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센터는 1) 국가적 영토성보다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중 스케일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2) 투기화된 도시개발을 추동하는 영토화된 배타적 소유권에 저항하는 공유적 실천을 강조하며, 3) 성장지향적 생산주의를 뛰어넘는 탈성장주의 도시화 방안을 탐구하여 동아시아에서 포스트 발전주의적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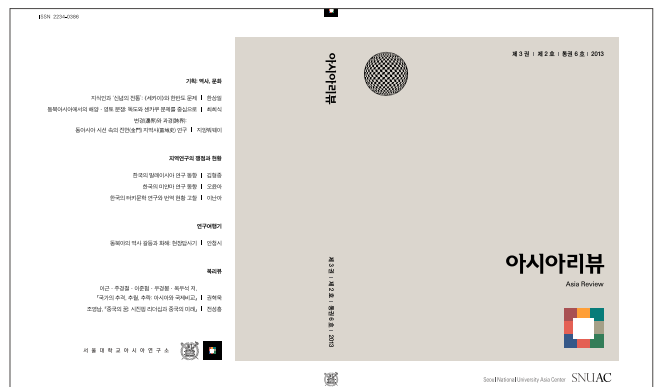
아시아연구소 정기학술지 <아시아리뷰> 등재학술지 선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정기학술지 <아시아리뷰>는 2011년 6월 30일에 창간호를 발행하여 2015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2017년 8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아시아리뷰>는 아시아연구소의 출범과 함께 기존의 서구 중심적 이론체계를 극복하고,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립화·토착화·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아시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다.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도 <아시아리뷰>는 우리나라 학술지로서는 흔하지 않게 기획주제, 자유주제, 복리뷰 등으로 구분하여 발간하고, 2011년 창간된 이래 빠르게 아시아 종합연구지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기획주제들도 냉전문제에서 아시아 자본주의, 음식문화, 투어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종합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논문의 질적 수준이 높고, 투고 및 편집 관련 제도도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단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아시아리뷰>는 아시아 지역 전문 학술지로서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면에서 높이 평가되며, 편집위원의 대외활동 및 연구업적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 및 가독성,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연구 윤리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학문 분야의 특수평가 등 종합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 몽골 문화주간

2017 몽골 문화주간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한국-몽골의 상호협력'을 주제로 2017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다. 몽골과 한반도는 예부터 사람의 왕래와 문물교류가 끊임없이 있었다. 몽골의 자본주의 체제변화 이후 한국과는 1990년부터 수교를 맺었으며, 이후 현재 한국과 몽골 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문화주간은 가까이 있지만 아직 낯선 나라 몽골에 대해 널리 알리고 한국과 몽골 간의 친선과 우대의 장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리고 몽골 사회의 최근의 변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곧 향후 한국과 몽골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흘 동안 진행된 문화주간 첫날에는 학술제와 대사 초청강연 및 만찬이 있었다. 특히 만찬에서는 몽골 전통음식을 맛보며, 몽골 학생들의 폐막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몽골 여행기와 포토에세이 공모전의 우수작 수상과 발표가 있었다. 여행기뿐 아니라 봉사활동 및 현지조사 체험기도 발표했으며, 몽골 유학생들이 멋지고 이색적인 여행코스를 소개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몽골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하였다. 또한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들이 연주한 몽골 퓨전 현대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몽골 문화주간에서는 몽골 유목민의 전통식 이동가옥인 게르(Ger)가 설치되었고, 몽골 전통의상과 풍물들이 전시되었다. 게르 앞에서 몽골 학생들이 몽골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였다. 또한 몽골 특산품인 캐시미어 전시회도 개최되었으며, 몽골 전통 문자 캘리그래피 전시회 및 체험전이 열렸다. 그 밖에 상설로 몽골의 자연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었으며, 몽골여행 안내버스 설치 등을 통해 말 그대로 문화주간 동안 몽골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2017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북토크 시리즈

아시아연구소는 국제아시아학자총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International Book Prize> 한국어판 주관기관으로, 2017년 ICAS 10의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했다. ICAS 우수 학술 도서상은 2004년부터 아시아 관련 우수 학술도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시아연구소는 114권의 도서를 제출받아 5권의 한국어 우수 도서를 선정하고, 2017년 가을학기에 서울대 중앙도서관과 함께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수상작 북토크 시리즈를 진행했다.

최우수도서로 선정된 정재훈의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아사나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은 돌궐이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의 서쪽으로 이동하며 아시아 내륙을 하나로 통합한 유목제국으로 지배, 분열, 붕괴해 나가는 역사를 분석한다. 남기정의 <기지국가의 탄생 - 일본이 치른 한국 전쟁>은 일본이 한국전쟁 동안 기지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그린다. 김명섭의 <전쟁과 평화 -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어떻게 협상국들의 행동 차이가 정전협상에 반영되었으며, 38선이 곡선의 경계선으로 대체되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한다.

임혁백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은 변방적 근대화의 맥락에서 비동시적 시간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역사적 시간은 단절적임을 말한다. 김승의 <북한 기록영화, 그 코드를 풀다>는 북한의 기록영화가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며 국가기구로 역할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음 ICAS 우수 학술도서는 2019년에 선정 및 발표될 예정이다.



학술행사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주제에 대한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강연, 초청 강연, 워크숍, 콜로키움, 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의 기획 및 주최를 통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생산 및 공유하는 동시에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 학술행사 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학술행사 일람

2/8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의 전통생 활문화

고가영 (아시아연구소)
양승조 (아시아연구소)
최아영 (아시아연구소)

2/13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The AIIB and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Ming Wan (George Mason U.)

2/18-23
환경협력 프로그램
〈워크숍〉 IPBES Asia-Pacific Regional Assessment Workshop : Nature's Contribution to People-아시아-태평양 지역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워크숍



박미선 (건국대)
박수진 (지리학과)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여창 (산림과학부)
이도원 (환경대학원)
주우영 (국립생태원)
Ambika Gautam (IPBES)/(유엔생물다양성 과학기구: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
Beria Leimona (IPBES)
Gillian Petrokovsky (Oxford U.)
Harpinder Sandu (IPBES)
Kirsten Davies (Macquarie U.)
Leni Camacho (IPBES)
Shalini Dhyani (IPBES)

3/3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공석기 (아시아연구소)
김성규 (아시아연구소)
김태균 (국제대학원)
김영춘 (울산과기원)
홍정표 (미디어자기국제대)
Toru Oga (Kyushu U.)
Norihiro Nihei (Tokyo U.)
Yuki Ooi (Nanzan U.)
Kyoko Tominaga (Ritsumeikan U.)

3/22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26)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사례와 평가』 출간 기념 세미나



정재호 (정치외교학부)

3/24
동북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Traveling Asia and Geographical Imaginaries

Liang Yucheng (Sun Yat-sen U.)
Endo Reach (Hokkaido U.)
Kim Sungmin (Hokkaido U.)
강명구 (연론정보학과)
Zhou Qian (Hokkaido U.)
Zhang Hong (Sun Yat-sen U.)

3/29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글로벌 거버넌스
〈특별강연〉 국제규범의 한국적 수용: 전환기정의를 중심으로

김현준 (고려대)

3/29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글로벌 리더십 연습

〈특별강연〉 서울의 사회적경제 이야기

이은애 (서울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4/1 ~ 5/27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춘계 방법론 단강좌: 다중회귀 분석/구조방정식모형/패널분석/네트워크 분석

심재만 (서울시립대)
정익중 (이화여대)
배명인 (국민대)
염유식 (연세대)

4/13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 Mechanism: Potentials and Pitfalls



Sebastian Biba (Goethe U.)

4/13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한인 사회주의 운동과 고려인 사회

반병률 (한국외대)

4/13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1) The Multiple Silk Road Initiatives, Uzbekistan's Approach, Political Consequence

Mirkomil Sadikov (Kadir Has U.)

4/14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2017년도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유승환 (국문학과)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17
동남아시아센터/ 한아세안센터
〈특별강연〉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동남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이요한 (한국외대)
백용훈 (한국동남아연구소)
엄은희 (아시아연구소)
이지혁 (아시아연구소)
최경희 (아시아연구소)
정범모 (아시아연구소)

4/19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글로벌 거버넌스

〈특별강연〉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과 NGOs

문경연 (전북대)

4/20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2) Why are Megachurches Attractive? The Growth of Mega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omas Kern (U. of Bamberg)

4/25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27)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금융 패권 경쟁: 통화전쟁의 가능성



이왕휘 (아주대)

4/26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글로벌 거버넌스

〈특별강연〉 기후변화와 지구정의

송지우 (정치외교학부)

4/27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3) 한국의 살인: 추세, 특징 그리고 전망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28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2)

임현진 (사회학과)

5/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글로벌 리더십 연습

〈특별강연〉 소셜픽션 워크숍

이원재 (여시재)

5/11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4) Comparing Welfare Regimes Across Regions: Care Arrangement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with an Eye to Migrant Domestic Care Workers

Peter Abrahamson (U. of Copenhagen)

5/18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5) Visual Perception and City in Post War Japan

Eun Jeong Choi (Princeton U.)

5/22~23
한국사회과학자지원 / 데이터과학과 지식창출 연구센터
<특별강연> 방법론 초청특강: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해와 활용
Fan Yang-Wallentin (Uppsala U.)

5/24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28) 수교 25주년에 돌아보는 한·중 관계



신정승 (한·중미래연구원 원장)

5/24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루싱 (난카이대학)

5/24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샤리아와 이슬람 윤리



김정명 (명지대)

5/25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6) 한러관계사에 있어 서 문화적요소의 영향
이민 (중국사회과학원)

5/26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아시아 NGO를 만나다: 아시아 NGO DB 구축 방법
공석기 (아시아연구소)
유지연 (정치외교학과)

5/26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워크숍> 관악구 시민정치워크숍 관악시민 의밤

5/27
환경협력 프로그램 /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
<정기학술포럼> 아시아 공동가치로서의 풍수



권선정 (서원대)
박수진 (지리학과)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도원 (환경대학원)
장미아 (건국대)
장지연 (대전대)
조인철 (원광대)
천인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최원석 (경상대)
한중구 (청운대)

5/30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리샤오화 (산시대)

5/31
시민사회 프로그램
<특별강연> Environmental Movements in East Asia



Hwa-jen Liu (Taiwan Nat'l U.)

6/1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7) The Sense of Nonsense in Cold War Korean Fiction
Evelyn Shih (UC Berkeley)

6/1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태국-말레이시아 접경 지역 이주 상인들: 빠당 배사 시장(Padang Besar Market)에서의 일상
Kettawa Boonprakam (Songkla U.)

6/2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전 통생활문화
강정원 (인류학과)
고가영 (아시아연구소)
남영호 (신한대)
양승조 (아시아연구소)
정형호 (전북대)
최아영 (아시아연구소)

6/2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 한국공간환경학회 / SH공사
<학술대회>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황진태 (아시아연구소)
심한별 (아시아연구소)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6/7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리자청 (랴오닝대)

6/8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8) Conserving the Yellow Sea: From an Anthropocene Perspective
Young Rae Choi (Florida Int'l U.)

6/8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콜로키움> 도쿄올림픽과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김은혜 (히토츠바시대)

6/14
아시아연구소
우즈벡 연구자들과의 교류행사



6/1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오찬행사
6/16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순허원 (중국환메이대)
진용 (중국환메이대)
류동젠 (중국환메이대)

6/22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North Korea in the Eyes of Nordic Countries



Geir Helgesen (Nordic Inst of Asian Studies)
Thomas Lehmann (Ambassador of Denmark to Korea)
Jan Grevstad (Ambassador of Norway to Korea)

6/2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Workshop on Social Economy in Asia: Diversity and Common Agendas

Bipasha Baruah (The U. of Western Ontario)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Xiaoshuo Hou (Skidmore College)
김익영 (정치외교학부)
이은선 (고려대)
Marguerite Mendell (Concordia U.)
Hiroki Miura (사회과학연구원)
Akihiro Ogawa (Asia Inst, U. of Melbourne)
Ilcheon Yi (UN Research Inst for Social Development)

6/26~30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ILO, 서울 시, ILO ITC, GSEF, SNUAC

<국제학술회의>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일의 미래에 대한 기여

6/27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The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Asian Studies in Europe



Philippe Peycam (Int'l Inst for Asian Studies)

6/27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인도네시아 아체(Aceh)주의 종교, 법, 교육
Michael Feener (U. of Oxford)

6/28
아시아연구소

<라운드테이블> The Current State of Asian Studies



Lauret Kendall (Past-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Michael Feener (Sultan of Oman Fellow, U. of Oxford)
Philippe Peycam (Int'l Inst for Asian Studies)
Geir Helgesen (Nordic Inst of Asian Studies)

6/29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China's Silk Road Strategy: Reflections on China's Rising 'Soft Power' in Central Asia

Bhavna Dave (U. of London)

6/30
아시아연구소



e-School 펠로십

7/3 ~ 8/11
한국사회과학자지원

<워크숍> 하계 방법론 워크숍: 기초통계학/중급통계학/패널분석/위계선형모형/공간통계분석

김두환 (덕성여대)
정해일 (고려대)
하상응 (서강대)
한경준 (U. of Tennessee)
김도형 (U. of Texas)

7/6
환경협력 프로그램

<초빙강연> GISCAM Platform을 활용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기법

구홍미 (Bonn대학 개발연구센터)

7/13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한국의 동남아시아연구 현황과 평가: 국가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김형중 (연세대)
정범모 (아시아연구소)

7/21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II

천지 (남개대)
우이차양 (절강대)
장이 (대외경제무역대)
장소화 (절강이공대)

7/27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클로키움> Rethinking East Asia in the New Global Economy



Henry Wai-chung Yeung (싱가포르 국립대 지리학과)

7/28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중국학자 초청세미나 II

루형 (길림대)
왕연현 (료녕대)
진용 (중국천메이대)
류등젠 (중국천메이대)

8/11
아시아연구소

7기 연구연수생 수료식

8/17
중앙아시아센터

<클로키움>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3

고가영 (아시아연구소)
김태연 (노어노문과)
신범식 (정치외교학부)
양승조 (아시아연구소)
오원교 (경기대)
이선우 (전북대)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최아영 (아시아연구소)

8/22-24
환경협력 프로그램

<국제워크숍> 류큐대학 풍수연구인력 초청 한일풍수워크숍과 국내답사



김중혁 (성신여대)
박수진 (지리학과)
이도원 (환경대학원)
장미아 (건국대)
조인철 (원광대)
진중현 (공주대)
최원석 (경상대)
한중구 (청운대)
스즈키 잇세이 (나카무라 겐 동방연구소)
아마모토 타카츠크 (일본중부대학)

9/22
한국사회과학자지원

<워크숍> 제3회 KOSSDA 데이터 페어: 생애주기별 패널데이터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이지연 (이화여대)
이순미 (한림대)

9/28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브라운백세미나> Economic Application of High-Dimensional Statistical Methods

서명환 (경제학부)

9/28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선택 II: 카자흐스탄



고가영 (아시아연구소)
김태연 (노어노문과)
신범식 (정치외교학부)
양승조 (아시아연구소)
오원교 (경기대)
이선우 (전북대)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최아영 (아시아연구소)

10/12-11/23
동남아시아센터/ 한아세안센터

<특별강연> 제4차 산업혁명과 아세안 시장



홍필기 (서울디지털대)
이태현 (주 비엑에스코리아)
이상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한준 (포스트미디어)
한광열 (NH투자증권)
남재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엄은희 (아시아연구소)

10/14 ~ 12/2
한국사회과학자지원

<워크숍>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 범주형 및 다변량분석/패널분석/위계선형모형/구조방정식모형

정운서 (고려대)
강정한 (연세대)
계봉오 (국민대)
임동균 (서울시립대)

10/18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특별강연> The Empirical Landscape of Trade Policy

Meredith Crowley (Cambridge U.)

10/18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특별강연> 전력산업의 자원적정성 문제와 전력시장 제도개선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10/19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2017 아시아기초연구 기획연구 발표시리즈 1



신광영(중앙대)
Ame L. Kalleberg (U. of N. Carolina-Chapel Hill)
Kevin Hewison (U. of N. Carolina-Chapel Hill)

10/24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Reconsidering the Practice of Islamic Finance in Southeast Asia: Bridging the Dichotomy between the Idea and the Reality

Shinsuke Nagaoka (Kyoto U.)

10/24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29) Position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omparing Singapore and South Korea



Shawn Ho Yuan Sheng (Nanyang Technological U.)

10/25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1) South Korean Children's and Adult's Reasoning about the Fairness of Housework Division
Allegra Midgette (UC Berkeley)

10/27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1) 들끓 유목제국사 552-745: 아시아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정재훈 (경상대)

10/27
동남아시아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

<국제학술회의> 2017 메콩 선사인 컨퍼런스: 라오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역량개발과 한국의 역할



이영란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
Lernthong Lathdavong (Nat'l U. of Laos)
Inthee Chanpaseurdher (Dept. of Education and Sports, Xayaboury, Laos)
이선지(라오스 푸틴맹청소년센터)
장미정(사)환경교육센터
엄은희(아시아연구소)

11/2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2)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 전쟁



남기정 (일본연구소)

11/2
중점연구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국내학술회의>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통로들

권오영 (국사학과)
고일홍 (아시아연구소)
이미숙 (인문학연구원)
심재관 (상지대)
김경나 (인문학연구원)
김민호 (상명대)

11/8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2) 한국의 방화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9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3)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김명섭 (연세대)

11/11
미·중관계 프로그램 / 도쿄대 대안정책연구소 안보연구소

<워크숍> (13) 제 6차 한·일 중국정세 대화



정재호 (정치외교학부)
조세영 (동서대)
이문기 (세종대)
김한권 (국립외교원)
허재철 (Ritsumeikan U.)
이민규 (재) 여시재
한국 측은 상기 인원 총 6명이 참여함.
Akio Takahara (U. of Tokyo)
Kiichi Fujiwara (U. of Tokyo)
Rumi Aoyama (Waseda U.)
일본 측은 상기 인원 포함 총 15명이 참여함

11/13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30)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현실과 과제
안덕근 (국제대학원)

11/16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3)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edia and Audience in the Background of Mobile Internet
Peng Chen (Nankai U.)

11/17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국제무역연구 워크숍
강문성 (고려대)
허정 (서강대)
노영우 (매일경제)

11/22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4) Bust on the Border: Demilitarization and Urban Development in Dongducheon
Bridget Martin (UC Berkeley)

11/22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31)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연구: OECD국가와 한국 사례의 비교

이민규 (재) 여시재)

11/22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4)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사의 다중적 시간



임혁백 (광주과기원)

11/24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2017 아시아기초연구 기획연구 발표시리즈 2

장기영 (국제문제연구소)
신옥희 (정치외교학부)
이정환 (정치외교학부)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Blaž Kržnik (한양대)
조임식 (Nat'l U. of Singapore)
이태희 (수원시정연구원)
한수경 (환경계획연구원)
이근 (경제학부)
이태동 (연세대)
정유선 (한국외대)
Chung-min Tsai (Nat'l Chengchi U. Taiwan)
Masao Kikuchi (Meiji U.)
박영은 (한양대)
김상철 (한국외대)

11/27
시민사회 프로그램 /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litical Science / 부경대 CORE 사업단

<워크숍>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arching for Alternatives in Future Society



공석기 (아시아연구소)
김영준 (울산과학기술원)
홍정표 (미아자기국제대)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정영란 (와세다대)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Toru Oga (Kyushu U.)
Yoshida Ryutarō (Keio U.)
Turtogtokh Janar (Mongolia Nat'l U.)

11/29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의> The Tragedy of Afghanistan: How Did It Happen, And Where Will It Go?



Willem Vogelsang (Int'l Inst for Asian Studies)

11/30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5) 북한 기록영화. 그 코드를 풀다



김승 (건국대)

11/30
아시아연구소
SNUAC 박사학위논문상 시상식



오승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재영 (국제대학원)
이성호 (지리학과)

12/1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2017 아시아기초연구 기획연구 발표시리즈 3

이현정 (인류학과)
강광문 (법학전문대학원)
이근 (경제학부)
서문기 (송실대)
임현진 (사회학과)
황석만 (창원대)
윤상우 (동아대)
이재진 (한양대)
박소정 (언론정보학과)

12/1~2
아시아연구소 / UNITAR
<워크숍>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지역개발

박수진 (아시아연구소)
김성규 (아시아연구소)
김유미 (아시아연구소)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허태욱 (카이스트)
심한별 (아시아연구소)
한윤애 (아시아연구소)
엄은희 (아시아연구소)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

12/4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시베리아의 항일 영웅들



박환 (수원대)

12/5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32) Assessing Personnel Changes at China's 19th Party Congress



Wang, Zhengxu (Fudan U.)

12/6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5) Views on the Ancient Decoration Ideas of China and Korea from the Angle of Zodiac Culture

Li Nan (Communication U. of China)

12/8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2017 아시아기초연구 기획연구 발표시리즈 4

Miura Hiroki (사회과학연구원)
권혁용 (고려대)
강명세 (세종연구소)
강우진 (경북대)
홍석경 (언론정보학과)
진달용 (Simon Fraser U.)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김주옥 (Texas A&M Int'l U.)
김신동 (한림대)

12/11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6) Defiant Outsiders, Compliant Insiders: Dynamic Interaction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Movements at the Hyundai Shipyard, Ulsan

Minhyoung Kang (Johns Hopkins U.)

12/20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특별강연> 방법론 공개특강: Stata를 활용한 Data Management의 기초



정민혁 (한국사회과학자료원, Jason TG)

2018년 1/8 ~ 2/23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통계 방법론 워크숍: 기초통계학/중급통계학/중단자료분석/네트워크 분석/피자넷 질적비교분석/인과관계분석

정해일 (고려대)
김두환 (덕성여대)
배병인 (국민대)
하상응 (서강대)
김형택 (심리학과)
정규진 (고려대)
민기재 (한국교통대)

1/11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이슬람 금융의 이해: Origin and Development of Islamic Partnership,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ial Cooperative



Murat CIZAKCA (KTO Karatay U.)
Nur Indah Riwayatanti (State Polytechnic Malang)

1/11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전시(展示) 이해하기: 박물관과 미술관



김성은 (삼성리움미술관)
염운옥 (고려대)

1/18
아시아도사센터

<콜로키움> 아시아도사센터 제1회 콜로키움: 오키나와 일본 복귀의 역할: 일본화와 탈일본화 사이에서



김민환 (한신대)

1/18
아시아도사센터

<상영회> 아시아도사센터 다큐멘터리 상영: <타카에>, <헤노코> (후지모토 유키하 사 감독)

1/22-23
중앙아시아센터/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아태평양연구소/아
키타 국제교양대학 아시아 지역연구연휴기구

<국제학술회의> The Future Development of ROK-RF Relations: In Search of Tr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gor Tolstokulakov (FEFU)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Marina Kukla (FEFU)
Tetsuya Toyoda (Akita Int'l U.)
Paul Richardson (U. of Birmingham)
Artyom Lukin (FEFU)
James Brown (Temple U.)
Sergei Sevastianov (FEFU)
신범식 (정치외교학부)
Seiko Mimaki (Takasaki U. of Economics)

2/2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KBS 방송문화연구소

<워크숍> 제4회 KOSSDA 데이터 페어: 한국의 생활시간조사



윤자영 (충남대)
이재현 (언론정보학과)
이주희 (통계개발원)
이윤석 (서울시립대)

2/2
중점연구소 / 한국고고학회 / 대한지리학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의 고대 문명 교류: 그 경로의 추적을 위한 학제 간 연구



권오영 (국사학과)
박정재 (지리학과)
김종일 (고고미술사학과)
박수진 (지리학과)
박전수 (경북대)
김민호 (상명대)

2/5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SNU-NTU Joint Workshop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이재열 (아시아연구소)
Ming-Jen Lin (NTU)
주병기 (경제학부)
Chang-Ling Huang (NTU)
Yu-Wen Chen (NTU)
박정민 (사회복지학과)
Li-Chen Cheng (NTU)
Hwa-Jen Liu (NTU)

2/19, 2/26
아시아도사센터

<세미나> '행성적 도시화' 세미나

황진태 (아시아연구소)

2/23
아시아연구소

8기 연구연수생 수료식

2/23
한국연구재단 / SSK-Networking 지원 사업
단 / 아시아도사센터

<심포지움> 2017-18 SSK-Networking 제3차 심포지움: 아시아도사센터 단일 센터 중심 심포지움

심한별 (아시아연구소)
이승욱 (카이스트)
오근상 (아시아연구소)





출판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아시아 관련 다양한 주제 연구 성과를 다룬 정기 학술지 <아시아리뷰>를 연 2회 정기 발행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비롯한 학술 전문 출판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총서>와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 등 아시아 지역의 학문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리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 2회 발행하는 <아시아리뷰>는 인문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통합을 모색하며 다양한 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연구'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상호 융합을 시도하며, 다각적인 시야에서 미래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아시아리뷰>는 2011년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2015년 7월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17년 8월에는 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아시아 종합연구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시아지역 전문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시아리뷰> 7권 1호와 7권 2호에서는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 북한의 대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 '식민지 오리엔탈리즘의 파생적 전유: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서양오리엔탈리즘 장서들에 대한 분석 및 해제'라는 새로운 주제의 특집논문을 게재하여 더 넓은 범위의 아시아 연구 학술지로서 진일보하였다.

<아시아리뷰> 7권 1호(통권13호)

자유 주제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 문제 인식 | 이정훈

공공의 적, 북한은 섬멸되어야 한다! 한미군사훈련의 '언론' 담론을 통해 본 분단체제의 이해 | 김성해·김민경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 흐름과 사고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 북한의 대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

소련형 대학의 노동자학부 | 잉그리트 미테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 정근식·김유애·임수진

구동독에서의 소비에트형 대학의 이식과 청산 | 임홍배

중국에서의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탈피 | 채미화

동남아 연구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 김형중

<아시아리뷰> 7권 2호(통권14호)

자유 주제

부패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서문기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와 변동: 발전국가를 넘어 국가자본주의로? | 윤상우

'국내청중' 대(對) '국외청중':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중 외교 갈등과 전략 | 장기영

세 가지 화두로 살펴본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신성모독, 탈-진실(post-truth), 정체성 정치 | 이지혁

중일전쟁 시기 동아시아 교향악단 교류: 하얼빈교향악단의 일본연주여행과 경성연주회(1939)를 중심으로 | 이경분

식민지 대학과 오리엔탈리즘의 파생적 전유: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서양오리엔탈리즘 장서들에 대한 분석 및 해제

독일 역사주의의 긴 그림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독일어 장서 구성 분석 | 문수현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Extrême-Orient)'의 탄생: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도서들 속에 얽힌 제국 시대 지식사의 네트워크 | 권윤경

영국 및 일본 동양학의 특징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영문 동양학 장서 | 윤영희

서평

와타나베 히로시 지음/박홍규·김선희 옮김, 『일본 정치사상사-17~19세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5. | 유불란

아시아리뷰 7권 2호의 발행과 함께 아시아리뷰의 영문 별책 부록이 발간되었습니다. 주제는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로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문화에 대한 연구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리뷰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uac.snu.ac.kr>

201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아시아는 통한다
이재열, 임현진



아시아의 혁신, 창조활동과
세계경제질서
박지형 외

2017년도 아시아연구소 출판물 (총 18권)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총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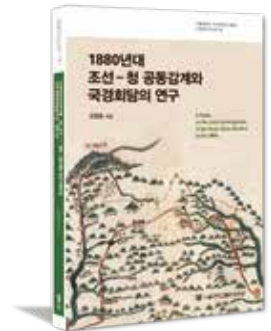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이현정 외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신옥희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장인성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김형중

모노그래프 시리즈 (총3권)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손정렬 외



재난과 살다
이강원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김도균



이란 도시 젊음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구기연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총7권)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정근식 외



주민과 시민 사이
공석기 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맛과 멋, 공간, 그리고 할랄
오명석 외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대
신범식 외

아시아연구소
아시아근현대사총서(총1권)



비교시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임현진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
이재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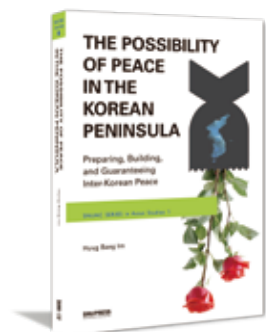


한국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공석기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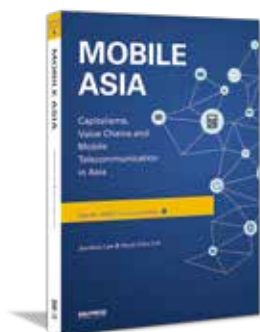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윤대영 역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총2권)



The Possibility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r
임혁백



Mobile Asia: Capitalisms, Value Chain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n Asia
이준구, 임현진

근간이연총서(총3권)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Suk-Man Hwang et al.

아시아투어리즘

강명구 외

영령들의 전후: 현대 일본의 특공 위령과 죽음의 정치

이영진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아시아연구소는 5개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한 우수한 아시아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아시아 연구 기획과제, 저술 지원사업, 주제개발 집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기초연구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아시아기초연구 기획연구 발표시리즈를 통해 연구진들의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각 연구팀은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독자적인 연구 방법과 내용도 출하고자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7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

- * 권혁용 외(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선호와 복지국가
- * 박영은 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소) | 현대 중앙아시아 대중문화의 시원(始原)인 'KVN'의 통·공시적 지형도 및 의미장 연구
- * 신광영 외(중앙대 사회학과) | 아시아의 '불안정 노동' 비교 연구
- * 이태동 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아시아 핵에너지 비교 정치: 핵에너지개발국가 이론의 개발 및 적용
- * 장기영 외(국제문제연구소) | '역사에 대한 기억'의 전략적 이용과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영토분쟁에서의 국가지도자 행위와 국내여론을 중심으로
- * 홍석경 외(인문정보학과) | 동아시아의 컨버전스 문화
- * 안도경 외(정치외교학부) | 아시아 사회경제적 다양성과 공통의 과제
- * 이재진 외(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한국, 일본, 프랑스의 혐오표현에 대한 비교 연구
- * 이현정 외(인류학과) | 변하는 중국, 변하지 않는 중국
- * 서문기 외(숭실대 정보사회학과) |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 국가의 미래
- * 오명석 외(인류학과) | 2017 아시아연구소 번역총서
- * 김소영 외(경제학부) | 아시아 정체성과 교류통합-동아시아 통합지수 개발 모색
- * 정현주 외(인문학연구원) |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통로들: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 * 서동주 외(일본연구소) | 현대 아시아 지역연구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학제적 연구
- * 황석만 외(창원대 사회학과) | 아시아 자본주의 II
- * 신인철 외(아시아연구소) | 아시아연구소 연구성과 축적 및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 최경희 외(아시아연구소) | 아시아의 교류·협력·통합(연결)을 위한 아시아지역리뷰

2017년도 아시아연구 주제개발 집담회 지원사업

- * 이현정 외(인류학과) | 아시아의 정상/병리 담론과 몸을 둘러싼 의료적 실천
- * 김성규 외(아시아연구소) | 아시아 개발협력 사업 평가와 방향성 모색 II: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 * 홍문숙 외(글로벌교육협력전공) |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여성엠펙워먼트'의 재구상
- * 김형중 외(중앙대학교) | 근현대 한중관계 문헌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 * 정형민 외(중앙대학교) | 동시대 한·중·일 시각문화에서의 정체성 담론 가능성
- * 김수아 외(기초교육원) |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인 것) 읽기
- * 김유미 외(아시아연구소) | 동아시아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 * 남기정 외(일본연구소) | 한국 외교의 프런티어로서 동아시아 접경지역과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
- * 정지현 외(중어중문학과) | 民譚, 傳奇, 歷史 - 漢字 문화권의 인물 神話
- * 홍찬숙 외(여성연구소) | 동북아 여성 지위와 사회운동

2017년도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 박순찬(공주대 국제통상학과) |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진화, 비교우위와 노동의 분배 몫
- * 설배현(전남대 사학과) | 쿠릴타이(Quriltai): 몽골 대칸 권력과 유라시아 공간의 새로운 심장
- *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중국 동북지역의 국가와 사회: 노후공업도시와 전형단위제를 중심으로
- * 나희량(부경대 국제통상학부) |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특성 및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7년도 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 * 원자연 (Jiayan Yun)(환경대학원) | 명말청초(明末清初) 소주(蘇州) 정원의 문화정치학
- * 이지영(동양사학과) | 청말 길림에서의 新政과 旗人層
- * 원세형(환경대학원) | 신흥국 도시에서 도로기반시설 개발이 커뮤니티와 도시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다낭을 중심으로
- * 김대욱(사회학과) | 중국에서의 '기업과 인권' 규범의 확산에 관한 연구
- * 채현정(인류학과) | 국경의 다중적 삶: 아세안경제협력시대의 국경지역개발과 국경교역실천의 다중화

2017년도 박사학위논문상

- * 오승희(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인정투쟁의 종일관계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 분석(1949-1972)
- * 이재영(국제대학원) | 중국지방 관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이념, 이해, 제도의 침투
- * 이성호(지리학과) | 중국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지방정부의 시장화주도



오승희

(現) 고려대 연구교수



이재영

(現)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소 연구교수



이성호

(現)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총연구비: 332,350,000원 (대응자금 포함)

공동연구원: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김병연(경제학부), 이철인(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전임연구원: 김유미, 김성규, 김종호, 고일홍, 박준의

연구 단계: 3단계 2차년도(2017.9~2018.8)

기초학문자료센터(DB구축사업)

과제명: 사회과학분야 DB 구축사업

연구책임자: 이재열(사회학과)

총연구비: 120,000,000원

공동연구원: 한준(연세대), 하상응(서강대), 김두환(덕성여대)

전임연구원: 최문희, 진윤아

연구 단계: 2차년도(2017.4~2018.3)

SSK(Social Science Korea) 사업

과제명: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평화·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총연구비: 582,750,000원

공동연구원: 김동완(경남대), 김용창(서울대), 김은혜(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박안권(서울시립대), 박철현(국민대), 신현방(런던정경대), 신혜란(서울대), 이상현(한신대),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전홍규(오사카시립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상현(경희대), 지주형(경남대), 최영래(플로리다국제대), 최영진(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제이미 듀셋(맨체스터대), 짐 글래스만(브리티시컬럼비아대), 진유슈(대만국립대)

전임연구원: 심한별, 황진태, 오근상, 백일순

연구 단계: 대형단계 1차년도(2017.9~2018.8)

한-일 협력연구사업

과제명: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총연구비: 15,000,000원

연구책임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김태균(국제학과), 박명준(국제대학원),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홍정표(미아자국제대)

연구 단계: 1차년도(2017.4~2018.3)

공공영역사업

과제명: 무역기술장벽(TBT)대응역량 강화기반 조성(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총연구비: 177,454,545원

참여연구원: 안덕근 외

연구기간: 2017.6.14~2017.12.15

과제명: 한-러 관계발전에 대한 국제적 고찰: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분석 방법 제시 (한국국제교류재단)

총연구비: 57,514,000원

참여연구원: 윤익중 외

연구기간: 2017.3.1~2018.5.31

과제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보고서 분석 연구 (국립생태원)

총연구비: 21,590,909원

참여연구원: 박수진 외

연구기간: 2017.2.16~2017.4.21

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17」 연구(통계청)

총연구비: 98,898,000원

참여연구원: 이재열 외

연구기간: 2017.4.24~2017.10.31

과제명: ASEAN 회원국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방안 모색 - 중국의 보완시장으로서의 아세안 진출 방안 모색(외교부)

총연구비: 9,636,364원

참여연구원: 최경희 외

연구기간: 2017.3.27~2017.4.27

과제명: 한-중 관계 갈등 사례의 분석 및 함의(외교부)

총연구비: 18,181,819원

참여연구원: 정재호 외

연구기간: 2017.5.8~2017.9.30

과제명: 대치동 일대 공간적 특성 및 도시사회적 변화과정 기록 용역(지방자치단체)

총연구비: 73,409,091원

참여연구원: 박배균 외

연구기간: 2017.5.22~2017.11.30

교육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모델을 통해 교내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1년부터 개설, 운영 중인 아시아연구소의 대표적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e-School Program을 비롯하여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된 한국사회과학자료를원(KOSSDA)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한-일 국제공동 아시아태평양컬리지 등을 통해 학생 및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였다.

KF Global e-School Program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사회가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 한국학 강의를 해외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으로 2011년부터 국제 한국학 강의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아시아연구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실시간 화상강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강의를 개설하며, 지난 7년간 아시아와 유럽 8개국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67개의 강좌를 운영해왔다.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및 국가별 최우수 대학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교육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결합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아시아연구소의 e-School Program에는 중국의 칭화대, 러시아의 고등경제대, 독일의 튀빙겐대, 프랑스의 파리7대(디드로), 이날코, 보르도-몽테뉴대와 베트남 국립 하노이인문사회대가 참여했다. 특히 칭화대로의 이스쿨 강의는 2017년 칭화대 내의 혁신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1년간 이들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1명의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하여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8개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총 164명의 해외 수강생이 참여하였다.

2017 e-School 강의 교수

- | | | | |
|---|-------------|---|-------------|
|  | 강명구(언론정보학과) |  | 김의영(정치외교학부) |
|  | 김인결(국사학과) |  | 김홍중(사회학과) |
|  | 박경숙(사회학과) |  | 배은경(사회학과) |
|  | 신의항(아시아연구소) |  | 이문웅(인류학과) |
|  | 정홍익(행정대학원) |  | 표학길(경제학부) |
|  | 홍석경(언론정보학과) | | |

또한 e-School Program은 2017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과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와의 협력으로 '2017년 KF Global e-School Fellowship Program'을 진행하여, 4개국 5개 대학에서 8명의 해외 우수 수강생이 참여하였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2명, 프랑스 파리7대 1명, 보르도-몽테뉴대 2명, 베트남 국립 하노이인문사회대 2명, 중국 칭화대 1명). 4주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국제하계강좌 등



록비 및 학비, 기숙사비가 지원되었고, 서울 방문 기간에는 아시아연구소 동아리 및 연구연수생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시아연구소는 공모절차를 통해 e-School Program 3단계 (2018-2020)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앞으로의 3년간 한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우수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 2017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Culture of Korea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가을 학기

-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 (Tsinghua Univ., China)
-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Nat'l Research Univ.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 Korean Political Econom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 Research Methods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Paris Diderot, France &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France)

겨울 학기

- Popular Culture and Media in Korea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2017 가을학기 튀빙겐대 오프라인 강의: 표학길교수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연구자와 대학원생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연 4회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동·하계 워크숍과 춘·추계 단기강좌의 형태로 관악 및 연건캠퍼스에서 동시 개설되며, 국내외 방법론의 정상급 교수들이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론 강의와 자료 분석 및 해석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 세션을 병행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KOSSDA의 2017년 춘계(4월 1일~5월 27일)와 추계(10월 14일~12월 2일) 단기강좌에는 다중화귀분석, 범주형 및 다변량분석, 구조방정식모형, 위계선형모형, 패널분석, 네트워크분석 등의 고급통계학 8개 강좌가 개설되어 교강사,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총 278명의 인원이 수강하였다. 하계(7월 3일~8월 11일)와 동계(1월 8일~2월 23일) 워크숍에는 기초 및 중급통계학과 공간통계분석, 종단자료분석, 인과관계분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등 15개의 양적·질적 연구방법론 강좌가 개설되어 총 585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KOSSDA의 소장자료가 연구과정에 보다 적절히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 프로그램 외에 2회의 방법론 공개특강을 개최하였다. 5월 22일과 23일에는 데이터과학과 지식창출 연구센터와 공동주최로 스웨덴 Uppsala 대학의 Fan Yang-Wallentin 교수를 초청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의 초청특강을 진행하였고, 12월 20일에는 “Stata를 활용한 Data Management의 기초”를 주제로 공개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 참여한 총 104명의 연구자들은 강의에서 다루어진 최신 통계기법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예제 분석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KOSSDA는 국내외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방법론 공개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7년도 하계 방법론 교육 워크숍: 중급통계학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은 서울과 후쿠오카를 오가며 실시하는 체험형 ‘한·일 국제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한일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국제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017년도 프로그램은 2018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캠퍼스 일본(2월 14일~21일, 큐슈)과 캠퍼스 한국(2월 21일~28일, 서울)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큐슈대, 고려대, 세이난가쿠인대 학생 총 39명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와 토론, 견학, 학생 주도 필드워크, 기업 탐방 및 인턴십, 문화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에서는 큐슈 다자이후에 방문하여 한일 교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기모노와 다도 체험을 통해 일본 문화를 배웠으며, 기업에 방문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실무진의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이전에 방문하여 도자기 체험을 하고, MBC 방송국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와 언론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한국의 종교와 민주화, 한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양국 학생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2주간 함께 생활을 하며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가능했다는 점에 크게 만족했으며, 일본의 문화 언어, 국제 관계와 관련하여 학습 동기가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참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및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는 후학세대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7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

학문후속세대

연구연수생, 아시아 미래전문가를 꿈꾸다

아시아연구소에서는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연구연수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연수생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둔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2월까지 8기 연구연수생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연수생들에게는 아시아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행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7기 수료생 11명, 8기 수료생 9명을 배출하였다.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은 1학기 동안 10회에 걸친 아시아학 개론 수업 및 자치 세미나, 답사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소논문 작성 프로그램'은 1학기 동안 아시아학 개론 및 자치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5기 연구연수생 프로그램부터 도입되었다. 수료식과 함께 연구소 내부 심사에 따라 수료생들에게는 최우수상부터 장려상이 주어진다.



제7기 연구연수생 수료식

제7기 연구연수생 명단

권희조 (건설환경공학부)
 김정우 (광운대 국제학부)
 김현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박재현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박종령 (경제학부)
 박평화 (예루살렘 히브리대 국제관계)
 이빈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장경환 (서강대 영미어문학과)
 전유정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
 진다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최민수 (동양사학과)

제8기 연구연수생 명단

김승정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민현중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신재술 (중앙대 사회학과)
 신하정 (미술대학 서양화과)
 심새별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양수경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승희 (한국외대 인도학과)
 이유송 (동양사학과)
 차리타 (외교학전공)

아시아연구소가 발굴한 박사연구자들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와 관련된 지역 및 통합 주제에 관한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SNUAC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과 SNUAC 박사학위논문상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SNUAC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은 박사논문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국내의 아시아관련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아시아연구소의 대표적인 인재양성사업이며, SNUAC 박사학위논문상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를 비롯한 아시아연구를 하는 후속세대 양성 및 신진 아시아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최근에 작성된 아시아관련 우수 박사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상금지급 및 출판자원을 하여 신진 연구자의 아시아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시아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

아시아연구소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아시아의 문화와 주제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 중인 교내의 2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아미고'

아미고는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의 약자로, 아시아의 지역별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 독서 세미나를 운영하는 동아리다. 2017년도 1학기에는 이슬람과 동남아시아라는 주제로 이슬람교와 무슬림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2학기에는 중국 속의 소수민족을 탐구함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 'FICS'

사회연구 및 교류 동아리 FICS는 도교대 소속의 동명의 단체와 함께 서울대-도교대 간 교류를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개별 연구를, 매년 8월 서울과 동경에서 1주일씩 양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형태의 세션을 진행한다. 2017년, FICS는 도교대 학생들과의 세션 준비를 위해 국회, 창덕궁, 인사동 등을 사전답사 및 복핵문제, 양성평등, 지역방언 등을 주제로 동아리 내 팀끼리 발표를 진행하였다.

미디어

아시아연구소 영문 웹사이트 리뉴얼

2017년 12월, 아시아연구소 영문 웹사이트가 4개월간의 리뉴얼 작업을 거쳐 새롭게 오픈하였다. 기존의 아시아연구소 국문 웹사이트와 유사한 구조에서 벗어나 타임라인에 기반을 둔 콘텐츠 업로드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블로그 형식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리뉴얼 작업을 통해 사용자들과의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단장을 마친 웹사이트는 기존의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페이지로써 데스크톱,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최적화된 상태의 화면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의 야심작, <다양성+Asia>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은 연구소의 연구 방향과 연구 결과물을 한국 사회에 대중적으로 소개하고자 2018년에 처음 준비된 연구팀이다.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설립 당시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을 모토로 연구 방향과 목적을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물로 아시아연구소의 연구 방향과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고, 2018년부터는 좀 더 대중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은 <다양성+Asia(DiverseAsia)>이라는 온라인 계간지(Quarterly Online Magazine) 창간을 결정하고, 그 첫 호를 올 6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는 3회, 그리고 내년 부터는 연 4회 발간되는 계간지가 될 것이다.

<다양성+Asia(DiverseAsia)>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의 지역 구분에 기초하여 아시아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의 교류, 협력, 통합(연계)'을 지향하는 웹진으로 만들 계획이다.

The Newsletter '동북아 소식란'에서 만나는 아시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아시아 연구기관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IIAS)에서 발간하는 <The Newsletter>지의 동북아 소식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통합적 연구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학문적 협력을 중시하는 IIAS는 전 세계 아시아 학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을 연결하는 주요한 소식지인 <The Newsletter>지를 연 3회 발행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이러한 IIAS 뉴스레터의 '동북아시아로부터의 소식(News from Northeast Asia)'란을 담당하는 지역 에디터로서, 아시아 지역의 현재적 이슈들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구상하고, 전문적인 집필진으로부터 수준 높은 원고를 확보하여 아시아 연구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he Newsletter>지 2017년 여름호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라는 주제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차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겨울호에서는 '북유럽 지역과 중국의 시선에서 본 북한'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동안 주류 미디어에서 소외된 동아시아 속에서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소개하였다. 2018년 봄호에서는 '동아시아 도시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의 도시들이 경험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살펴보았다. '동북아시아로부터의 소식'란 원고 집필에는 아시아연구소의 자체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아시아연구소 연구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연구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아시아 연구의 허브로서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 관련 연구자들이 많이 구독하는 <The Newsletter>지는 인쇄물과 웹페이지(<http://iias.asia/the-newsletter>) 형식으로 제공된다. 2018년 여름호부터는 '동북아시아로부터의 소식'란을 통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개별 연구 센터를 소개하거나 연구소에서 발행한 영문 학술저서에 대해 소개하는 등 <The Newsletter>를 통한 홍보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후원/재정

연구기금

(주) 삼익약기 김종섭 회장 (10억원)

(주)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10억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학술교류기금, 1억원)

서울대학교 임현진 명예교수
(임길진 Fellowship, 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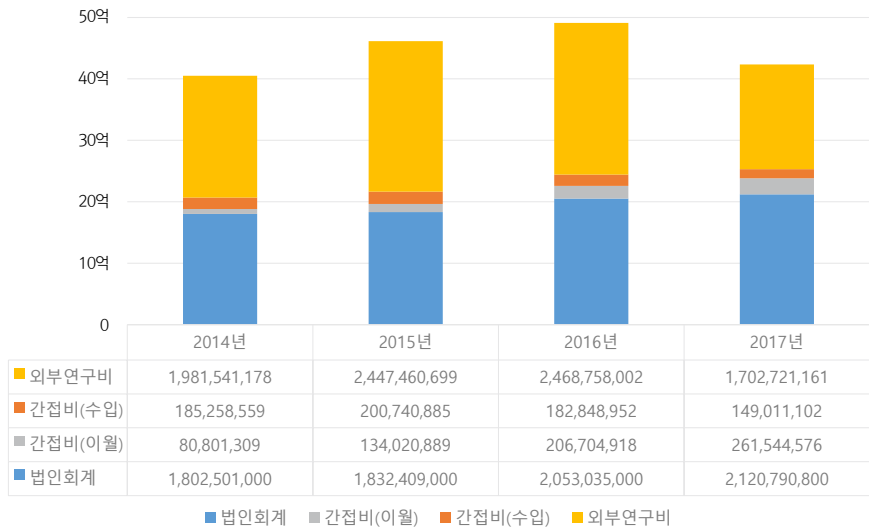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기금 (12억원)

세계한류학회 (국제학술기금,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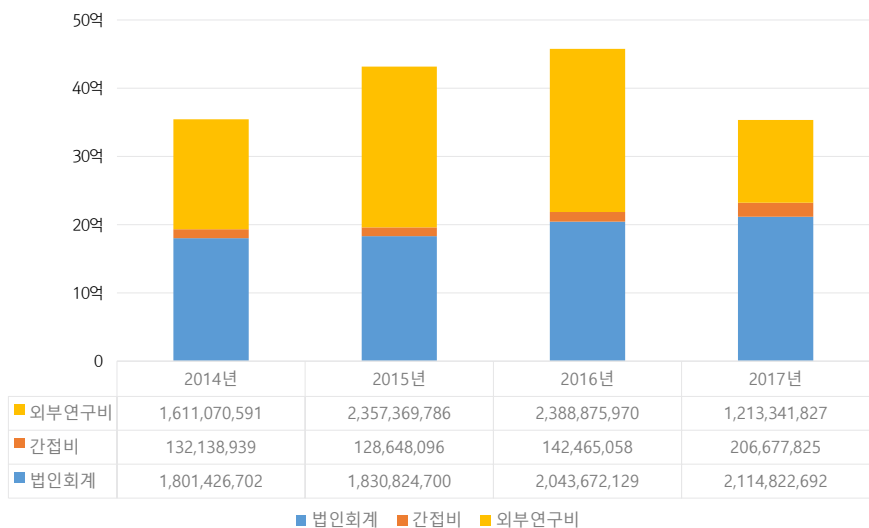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안청시 명예교수
(발전기금, 1천만원)

※2009년 이후 누적분임

2014년-2017년 수입



2014년-2017년 지출



※ 외부연구비(수입): 국제교류재단(2017. 3 ~ 2018. 2 KF Global e-School),
한국연구재단(2017. 9 ~ 2018. 2 외부연구비 지원사업 참조)
기타 공공용역사업(외부연구비 지원사업 참조)

※ 외부연구비(지출): 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2017. 3 ~ 2018. 2)

※ 그 외 사업기간 회계 및 산정 기간: 2017. 3 ~ 2018. 2

연혁

- 2009년 2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 2009년 9월 제1회 SNUAC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란 무엇인가: 회고와 전망' 개최
- 2010년 7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 2010년 9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1년 3월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1년 10월 SNUAC 국제학술대회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개최
-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3년 3월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시작
- 2013년 4월 <열린강연> '이제는 아시아시대' 개최
-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 2013년 9월 제3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 2013년 9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 2013년 11월 <인도 문화주간> 개최
- 2014년 3월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개최
- 2014년 9월 신흥지역연구사업 2단계 진입, SSK 사업 중형 단계 진입(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연구단) 및 신규 유치(동아시아와 도시연구단), 토대연구사업 선정
-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문화주간: 오감으로 느끼는 인도네시아> 개최
- 2015년 6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 2015년 7월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 2015년 10월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개최
- 2016년 4월 국제학술회의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개최
- 2016년 9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진입
- 2016년 10월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 실크로드의 진주, 우즈베키스탄을 만나다> 개최
- 2016년 12월 2016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과제 총 12개 선정
- 2017년 8월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 2017년 9월 제5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박수진 교수)
- 2017년 10월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대형 단계 진입. '아시아도시센터' 출범
- 2017년 11월 <몽골 문화주간: 광활한 초원, 21세기 유목민의 나라 몽골> 개최
- 2017년 11월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출범
- 2018년 1월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 출범
- 2018년 2월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출범







사람들

※2017년 3월 ~ 2018년 2월 기준

소장 박수진(지리학과)
 부소장 홍백의(사회복지학과)
 학술연구부장 이재열(사회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이정훈(중어중문학과)
 동북아시아 센터장 김병연(경제학부)
 동남아시아 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중앙아시아 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센터장 이재열(사회학과)
 아시아도시센터 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미-중 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김익영(정치외교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창립소장)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공동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안덕근(경제학부)
 환경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선임연구원

고일홍(고고학)
 공석기(사회학)
 구기연(인류학)
 김성규(산업사회학)
 김신주(경제학)
 김종철(사회학)
 김종호(역사학)
 김유미(국제학)
 남은영(사회학)
 박준의(정치학)
 백일순(지리학)
 신인철(사회학)
 심한별(도시계획학)
 양승조(역사학)
 오근상(행정학)
 조규훈(종교학)
 진윤아(가족관계학)
 최경희(정치외교학)
 최아영(역사학)
 최문희(사회학)
 황진태(지리학)

연구원

고지영(사회복지학)
 강수영(지리학)
 김대훈(사회학)
 김예인(신문방송학)
 김혜진(인류학)
 박찬진(국제관계학)
 장지영(정치외교학)
 최현아(정치외교학)
 한아름(경제학)
 한윤애(지리학)
 허혜옥(사회학)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고지영(방법론교육)
 김혜진(질적자료)
 신인철(자료원총괄)
 이상운(통계자료)
 장지영(대외협력)
 진윤아(방법론교육)
 최문희(KRM DB 구축연구)
 한아름(문헌자료)
 허혜옥(조사자료)



연구행정지원실

윤화식(행정총괄)
 김봉준(출판/자료)
 김서현(아시아리뷰담당)
 김예인(홍보)
 김주영(국제교류)
 박송희(교외연구과제관리)
 박유빈(영문에디터)
 박종홍(디자인)
 박찬진(개발협력)
 백현지(교내연구과제관리/e-School)
 우영숙(법인회계지출)
 이나현(국제교류)
 전지영(출판/자료)
 정민해(아시아도시센터행정)
 정선주(법인회계/일반행정)
 최현아(부속실)
 최희진(학술연구지원)

직원연구원

권혁용(고려대)
 김민환(서울대)
 김수정(충남대)
 김용덕(광주과학기술원)
 나희량(부산외대)
 노재연(숙명여대)
 박순찬(공주대)
 박영은(한양대)
 박영훈(서울대)
 박철현(국민대)
 서문기(서울대)
 설배환(전남대)
 신광영(중앙대)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윤선희(한양대)
 윤익중(한국외대)
 이선우(서울대)
 이성범(서강대)
 이재진(한양대)
 이태동(연세대)
 임경택(서강대)
 정미경(부산외대)
 주윤정(서울대)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홍정표(Miyazaki Int'l College)
 황석만(창원대)

방문연구원

강민형(Johns Hopkins Univ.)
 강명세(서울대)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헌(Univ. College London)
 이민(중국사회과학원대학원)
 최영래(Florida Int'l Univ.)
 최은정(Princeton Univ.)
 Allegra J. Midgette(UC Berkeley)
 Bridget Martin(UC Berkeley)
 Cencen Hu(Renmin Univ. of China)
 Evelyn Shih(UC Berkeley)
 Heyun Sun(Communication Univ. of China)
 Li Nan(Communication Univ. of China)
 Mirkomil Sadikov(Kadir Has Univ.)
 Peng Chen(Nankai Univ.)
 Peter Abrahamson(Univ. of Copenhagen)
 Thomas Kern(Univ. of Bamberg)
 Todoroki Hiroshi(Ritsumeikan APU)





2017 연차보고서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발행일 : 2018년 3월 28일

발행인 : 박수진

기획 : 홍보위원회

편집 : 김예인, 박유빈

디자인 : 박종홍

주소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화 : 02-880-2692

팩스 : 02-883-2694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hone : 02-880-2692

Fax : 02-883-2694

Homepage : <http://snuac.snu.ac.kr>
Facebook : <http://www.facebook.com/snuac>
Newsletter : <http://snuacnews.snu.ac.kr>
E-mail : snuac@snu.ac.kr